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 컨설팅 위원

채 현 탁 _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이 배 _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 정 태 _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팀장

박 란 이 _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 부장

· 컨설팅 지원

김 연 아 _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 차장

차 례



제1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개요	1
제1절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및 목표	3
제2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5
제3절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10
제2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개요	11
제1절 컨설팅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컨설팅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15
제3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과정 및 결과	19
제1절 동구	21
제2절 서구	39
제3절 유성구	54
제4절 대덕구	69
제4장 컨설팅 총평 및 제언	83
제1절 컨설팅 총평	85
제2절 제언	90
부 록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체크리스트	95

표 차례

< 표 2-2-1 > 컨설팅 주요 내용 회차별 컨설팅 주요 내용	16
< 표 2-2-2 > 컨설팅 주요 내용 회차별 추진방법	17
< 표 3-1-1 > 동구 1차 컨설팅 추진 개요	21
< 표 3-1-2 > 동구 1차 컨설팅 추진현황.....	21
< 표 3-1-3 > 동구 2차 컨설팅 추진 개요	26
< 표 3-1-4 > 동구 2차 컨설팅 추진현황.....	27
< 표 3-1-5 > 동구 3차 컨설팅 추진 개요	32
< 표 3-1-6 > 동구 3차 컨설팅 추진현황.....	32
< 표 3-1-7 > 보건소의 추진현황	33
< 표 3-2-1 > 서구 1차 컨설팅 추진 개요	39
< 표 3-2-2 > 서구 2차 컨설팅 추진 개요	44
< 표 3-2-3 > 서구 3차 컨설팅 추진 개요	49
< 표 3-2-4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주요내용	50
< 표 3-2-5 > 서구 동 통합돌봄창구 설치에 따른 주요 역할	51
< 표 3-3-1 > 유성구 1차 컨설팅 추진 개요	54
< 표 3-3-2 > 유성구 2차 컨설팅 추진 개요	60
< 표 3-3-3 > 유성구 3차 컨설팅 추진 개요	64
< 표 3-4-1 > 대덕구 1차 컨설팅 추진 개요	69
< 표 3-4-2 > 대덕구 2차 컨설팅 추진 개요	74
< 표 3-4-3 > 대덕구 3차 컨설팅 추진 개요	79

그림 차례



< 그림 1-1-1 >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4
< 그림 1-2-1 >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설치 모형.....	6
< 그림 1-2-2 > 자치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모형	7
< 그림 1-2-3 >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8
< 그림 1-2-4 >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9
< 그림 3-1-1 > 동구 진단 도표.....	25
< 그림 3-2-1 > 서구 진단 도표	42
< 그림 3-3-1 > 유성구 진단 도표	59
< 그림 3-4-1 > 대덕구 진단 도표	73

제 1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개요

- 제1절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목표
- 제2절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제3절 시범사업 주요 특징

제1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개요

제1절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목표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 내 통합돌봄체계 구축 선도 및 대전형 돌봄 모델 개발·안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추진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자치구를 선정하여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을 선도하고 대전형 돌봄모델 개발·안착으로 돌봄 친화도시 구현함.
 -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계획과 모델을 제시하고 자치구가 보유한 인력, 자원, 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활용함.
 - 자치구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추진(민·관 협력, 주민참여)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
-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에 따라 4개 자치구가 참가
-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10261호, 2020. 7. 13)에 따라 추진함.
 - 2019년 9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유성구와 대덕구가 참가, 2020년 5월 공모부터는 동구, 서구가 참가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구가 신청하여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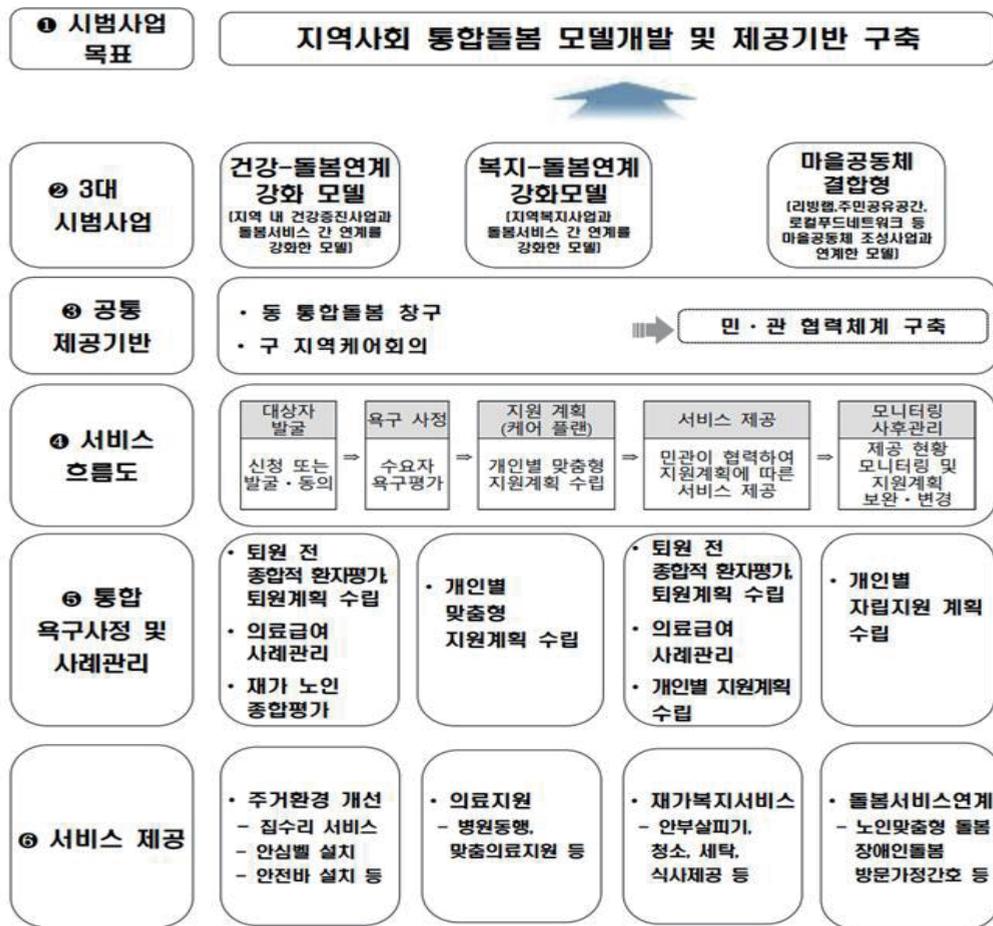
2. 목표와 운영체계

- 목표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제공기반 구축'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통합적 맞춤형 지원, 지역 특성을 살린 가용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함.

○ 운영체계

- 3대 시범사업, 공통 제공기반, 서비스 흐름도, 통합 욕구 사정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영역 포함함.
- 3대 시범사업 : 건강-돌봄 연계 강화 모델, 복지-돌봄 연계 강화 모델, 마을공동체 결합형 모델
공통제공기반 : 동 통합돌봄 창구, 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력체계 구축함.
- 서비스 과정 : 대상자 발굴, 욕구 사정, 지원 계획(케어 플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통합 욕구사정 및 사례관리는 퇴원 전 종합적 환자 평가·퇴원계획 수립,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노인 종합평가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함.
- 서비스는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를 제공.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1-1]과 같음.

< 그림 1-1-1 >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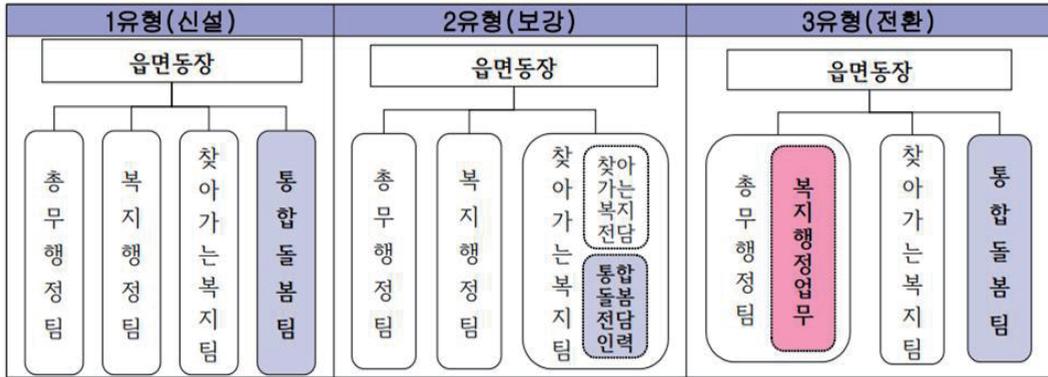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돌봄사업 및 대전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 사업예산은 자치구 1개소당 1억원으로 하고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계획함.
- 시범사업은 공모형태로 추진하며 세부사업 추진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속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고려하였음.

제2절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공통제공기반구축

-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개설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초육구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행,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함.
- 통합돌봄창구는 동의 인구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동의 전체 인구가 3만명 이상이고 돌봄인구가 총인구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돌봄팀을 신설(1유형)하고, 25% 미만이면 찾아가는 복지팀에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형태(2유형)로 운영하도록 함.
- 반면 동의 전체 인구가 3만명 이하이고 돌봄인구가 총인구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복지행정 업무를 총무팀으로 이관하며 복지행정계 계장 직제를 통합돌봄팀이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25% 미만이면 찾아가는 복지팀에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형태(2유형)로 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조직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2-1]과 같음.

〈 그림 1-2-1 〉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설치 모형



○ 통합돌봄창구 역할을 유관기관이 병행함으로써 통합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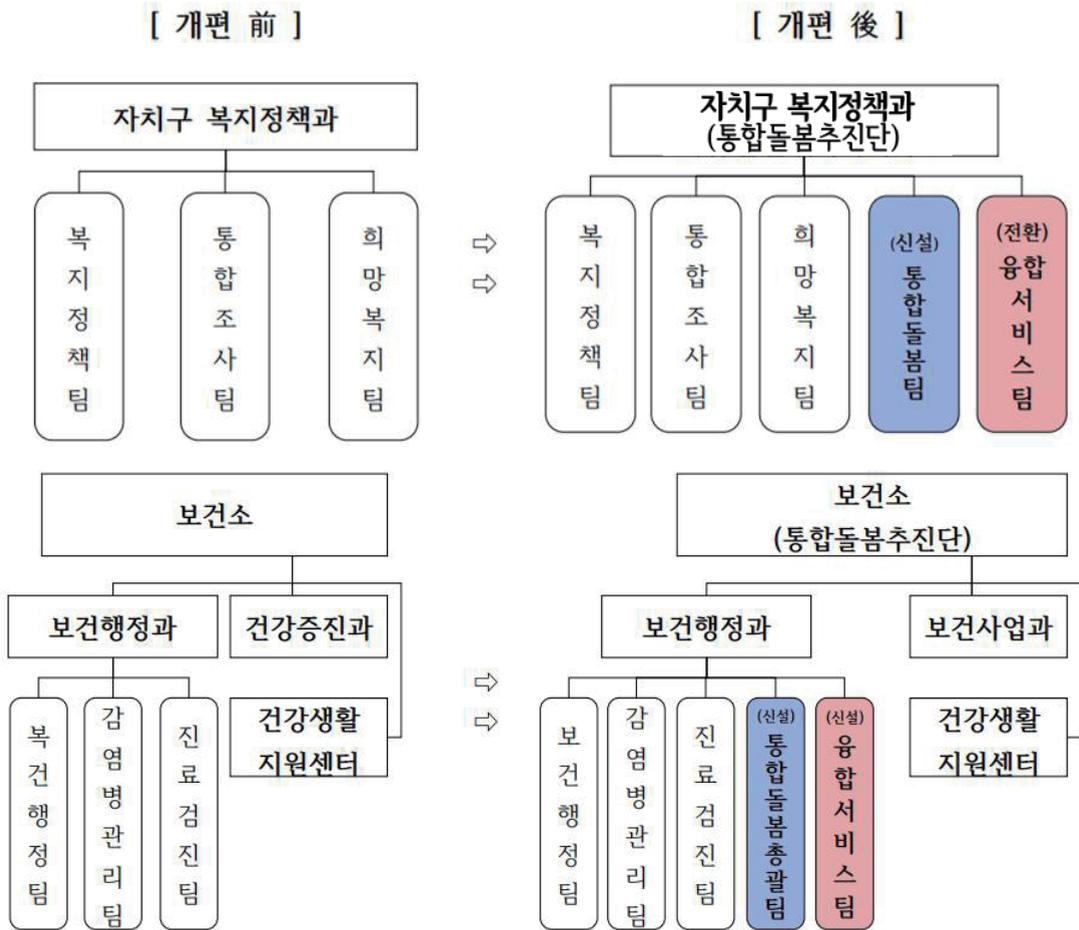
- 통합돌봄창구의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같은 유관기관이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함.

□ 자치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 자치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민관협의체의 실무간사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설치함.

- 자치구 본청에 ‘통합돌봄팀’을 설치하고 기존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전환하여 고난도 사례관리 및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도록 함.
- 자치구 본청에 전담조직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에 ‘통합돌봄총괄팀’과 ‘융합서비스팀’을 설치하도록 함.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2-2]과 같음.

〈 그림 1-2-2 〉 자치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모형



□ 비상설 민·관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공공·민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이 참여 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함.

- 민·관협의체는 행정부서, 서비스제공기관, 단체, 학계,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LH지역본부, 보건의료단체,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지역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을 포함하며 구성함.

- 분기별 혹은 반기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 자원 배분 등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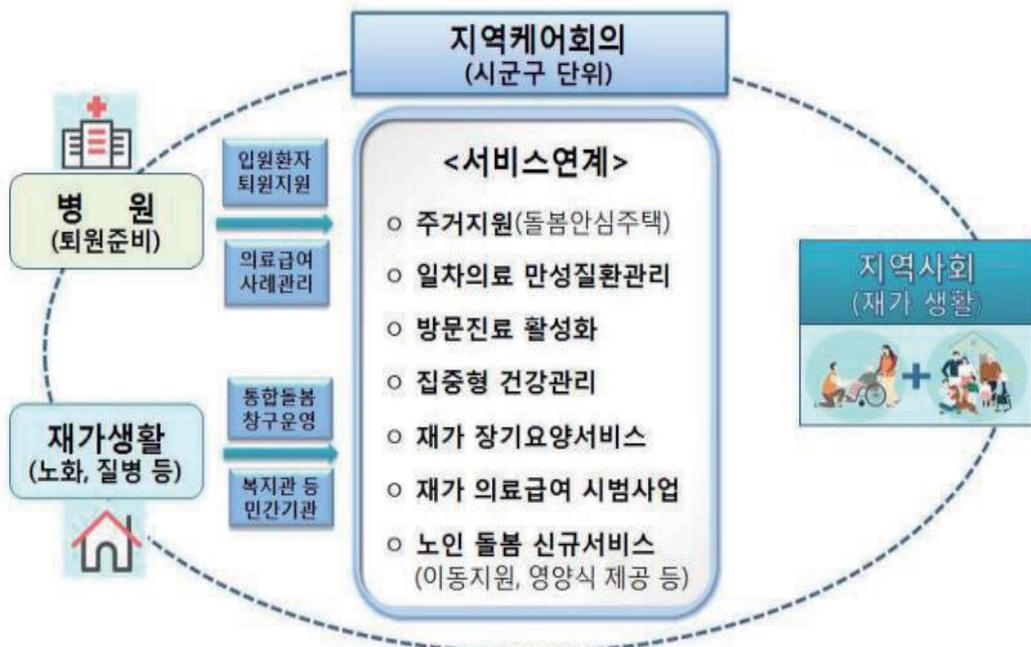
2. 자치구 선택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안)

□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통합돌봄 모델

○ 자치구가 선택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로 노인 통합돌봄 모델 제시

- 이 모델은 예방·건강관리, 재가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다는 목표를 가짐.
-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원하는 환자,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화·사고·질병·기능상태 저하 등으로 미관리시 병원 또는 시설에 입원·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모델은 대상군을 대상으로 자치구 단위의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퇴원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연계,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 신규돌봄 서비스 개발·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2-3]과 같음.

〈 그림 1-2-3 〉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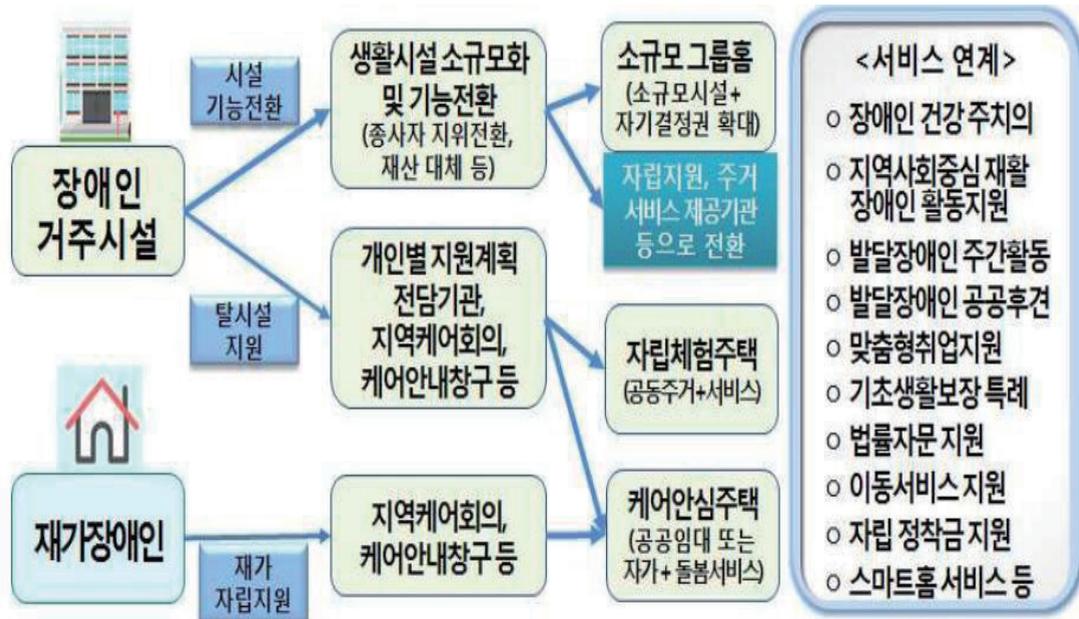
- [그림 1-2-3]은보건복지부가 노인 대상 통합돌봄 모델로 제시한 것이어서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지원 모델

○ 자치구가 선택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로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제시

- 이 모델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및 인권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짐.
-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모델은 대상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자립체험주택·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독립생활 지원(소득, 고용, 보건의료, 돌봄, 공공후견, 법률지원, 스마트홈 서비스 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2-4]와 같음.

< 그림 1-2-4 >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 [그림 1-2-4] 또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모델로 제시한 것이어서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제3절 시범사업 주요 특징

- 자치구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통제공기반 구축이 초점
- 대전광역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공통제공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창구 개설·운영, 자치구 내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민·관협의체 운영의 세가지를 목표 활동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시범사업 계획에서 자치구가 공통제공기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화 방법을 제시하여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자치구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 시범사업의 대상을 지역사회 및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안)으로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통합돌봄 모형과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지역 정착 지원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장애인 대상자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전광역시만의 모형(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치구가 창의성과 기획력을 갖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강조
- 자치구의 다양한 돌봄 문제 및 욕구에 기반하여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자치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창의성과 기획력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공모계획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양한 정책, 관련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제 2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개요

제1절 컨설팅 배경 및 목적

제2절 컨설팅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

제2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개요

제1절 컨설팅 배경 및 목적

1. 컨설팅 배경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에 상관없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
- 정부는 2018년 1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발굴과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하여 2019년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행하였음.
- 대전광역시는 2019년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를 통해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예방적 돌봄강화를 위한 목표집단 확대와 주민자치기반 공동체 돌봄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 리빙랩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케어의 결합 등을 제안하였음.
- 2020년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매뉴얼」연구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민관협치체계구축,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구축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서비스 확충의 세가지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전광역시는 2025년까지 돌봄친화형 도시 구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돌봄체계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계획하였으며 2020년 제1차 대전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2020년 유성구, 대덕구 2개 자치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대덕구, 유성구, 동구, 서구의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7월 이후 중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되었음.
- 2022년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추진하며 UCLG세계총회(22. 10. 12.)에서 대전광역시 스마트 돌봄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전형 온정나눔, 대전형 퇴원환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돌봄사업 추진되었음.
- 또한 자치구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2021년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의 시범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마을복지활동가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마을복지활동의 교육모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민관의 관계자 역량을 강화함.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36개 복지관을 82개 행정동과 매칭하여 자치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장협의체, 주민참여형 돌봄사업인 복지만두레 및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사업으로 확장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함께 강화함.

2. 컨설팅 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추진 과정의 어려움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함.
- 자치구별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바람직한 방향성을 정립함.

- 자치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계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4대 핵심요소인 주거, 건강·의료, 영양·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원활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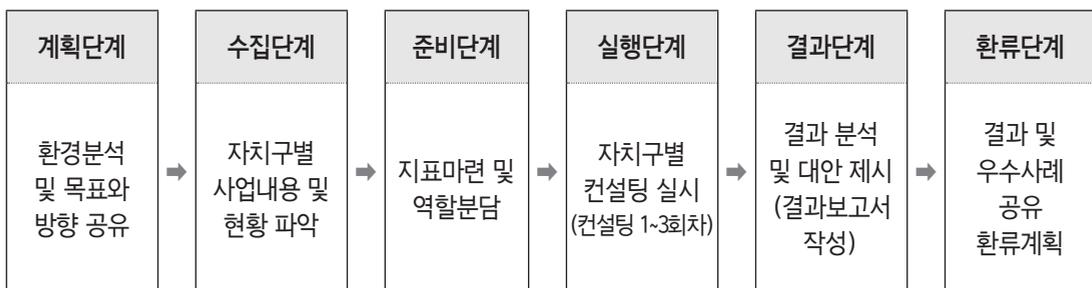
제2절 컨설팅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1. 컨설팅 추진절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컨설팅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1단계: 컨설팅 계획단계로 환경, 정책, 전년도 컨설팅 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연도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함.
- 2단계: 자료수집단계로 각 자치구별 사업의 내용 및 기초 현황을 파악함.
- 3단계: 준비단계로 컨설팅을 진행할 컨설턴트가 모여 목적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위원별 역할을 분담함.
- 4단계: 실행단계로 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함.
- 5단계: 결과단계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6단계: 환류단계로 컨설팅결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와 사업담당자 및 주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하여 보완될 내용을 차년도 컨설팅에 반영함.

○ 컨설팅 추진 절차



2. 컨설팅 기본 원칙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공기반 구축 및 지역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함.

- 1) 지역성 : 자치구별 현장의 복지환경, 예산 및 사업 등에 맞춤형 컨설팅
- 2) 자율성 :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지역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진행
- 3) 체계성 : 시범사업 자치구 전반 컨설팅 과정의 체계성 도모
- 4) 자발성 : 민간 및 공공의 자발적 컨설팅 참여
- 5) 협력성 : 컨설팅의 성공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

3. 컨설팅 주요 내용

1) 회차별 컨설팅 주요 내용

구 분	컨설팅 세부내용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토의 - 시범사업 운영 어려움 토의(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지역케어회의 실제화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 컨설팅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협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문제점의 충분한 공유와 단기 문제 중심의 컨설팅 - 동 통합돌봄장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을 위한 컨설팅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 전체 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등 제언(향후 방향성 및 환류계획)

2) 회차별 추진방법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연간 일정	5월	8월	10월	12월
대 상	자치구	자치구 및 연계사업 담당자	자치구 및 행정동 및 보건소	자치구 및 행정동, 보건소 거점복지관
일시	2022. 5. 18. (수) 2022. 5. 23. (월)	2022. 8. 25. (목) 2022. 8. 26. (금)	2022. 10. 18. (화) 2022. 10. 19. (수)	2022. 12. 21. (수)
장 소	개별 자치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The BMK
방 법	자치구별 컨설팅	자치구별 컨설팅	자치구별 컨설팅	전체 집합 컨설팅
컨설팅단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외부전문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외부전문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외부전문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외부전문가

제 3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과정 및 결과

- 제1절 동 구
- 제2절 서 구
- 제3절 유성구
- 제4절 대덕구

제3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과정 및 결과

제1절 동구

1. 1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5. 18. (수) 10:00~12:30	장소	동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토의 · 2022년 시범사업 계획서 검토 및 토의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8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4명)	
	참여기관	2명(자치구 관계자)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실적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대상)65세이상 퇴원환자(긴급의료비 지원대상 포함) (내용)의료기관 협약 서비스 연계 및 지원	11개 의료기관 협약 계속 협력 추진중
어르신 안심주거지원	(대상)주거환경 취약 어르신 (내용)어르신 맞춤형 주택 개보수	○○○건축(자활기업)협약 100가구 계획 /30가구 실시
식사 (영양밀반찬)지원	(대상)퇴원환자 및 복합만성질환자 (내용)결식위험 어르신 영양 밀반찬 지원	동구지역자활센터 ○○○○사업단 180가구 계획 /30가구 실시
동구형 안심서비스앱지원	(대상)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내용)동구 안심서비스 앱 설치로 안부확인	동구안심서비스 100가구 계획 /25가구 실시

○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① 통합돌봄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 사업대상을 동구의 노인으로 정하지 않고, 노인 중 요양병원에서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노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에 있으나 거부감이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반찬(주회), 집수리(일부) 수준에 불과함으로 돌봄대상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제한적임.

컨설팅단 의견

- 동구 지역의 돌봄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돌봄대상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함.
- 서비스들이 비전과 연계성을 가져야 동구형 통합돌봄이 될 수 있음.

②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 자치구 통합돌봄 담당인력은 팀장 1명(전체총괄), 담당자 1명(희망복지 업무 병행)으로 구성됨.
-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여 동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임.
- 현재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면 행안부, 복지부에서 필수적으로 동에 전담팀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통합돌봄 창구는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이 부족하고 민원창구에서 대상자가 왔을 때 수시로 연계하는 상황임.
- 통합돌봄 대상 기준은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계하는 상황임.

컨설팅단 의견

- 동구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력 1명이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타시도의 경우 최소 3명(복지직 + 간호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볼 때 전담인력 구성이 취약함.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과정처럼 통합돌봄도 업무과정,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아 2020년 복지부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에 준하여 희망업무 대상과 통합돌봄 대상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임.
- 민관협의체는 각종 자원관리 및 공유, 주체간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이 필요함.
- 민관협의체의 별도 구성이 어렵다면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③ 통합돌봄 대상자 설정

-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중점 대상자를 지정해 놓지는 않은 상황임.
- (요양)병원, 주거시설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희망자를 통합돌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는 상황임.

④ 지역케어회의 운영

- 동단위 희망복지팀에서 상담 후 돌봄대상이 발견되면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케어회의를 조직 및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동구는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내부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어 지역케어회의와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케어회의와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동과 매칭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지역케어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중점 대상자가 있으나 이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여 활성화 필요한 상황임.
-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약은 진행하였으나 정보제공 및 대상자 연계협력은 제한적임.
- 예산의 경우 다른 자치구는 몇 개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동구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 자치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전시 차원에서 온정나눔 퇴원환자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영양, 주거, 이동, 요양, 긴급, 통합돌봄 대상을 분리하여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대전광역시는 충남대학병원, 을지대학병원, 성모병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요양병원 퇴원환자 포함 등 대상 범위를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⑥ 통합돌봄 자원 확보 및 지원(교육·홍보 등)

-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자생단체 회의를 홍보하고 있음.
- 보건소와 협력하여 방문 간호직을 하반기 5개동에 배치할 예정임.

○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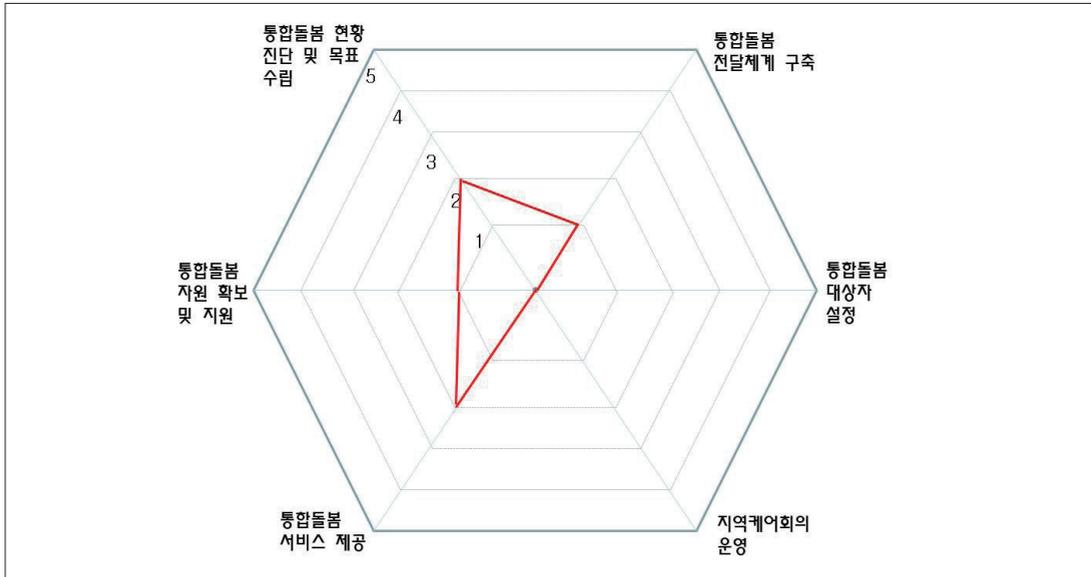
- 단기과제로 동구 지역의 돌봄문제, 통합돌봄 서비스 절차와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함.
- 또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역할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케어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요구됨.
- 장기과제로는 조직체계 구축, 통합돌봄창구 인력, 자치구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그리고 시단위에서 자치구에 필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동의 보라미 인력 활용 방안도 고민하여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하고 대전광역시 온정나눔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구 통합돌봄사업과 접목할 필요가 있음.

컨설팅단 의견

-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에 부시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어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가 자치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3) 정리 및 과제

〈 그림 3-1-1 〉 동구 진단 도표



○ 추진현황

- 동구는 2021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16개 전동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기초적인 수준(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전달체계

- 16개 전동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추진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음.
- 현행 담당자 1인이 여러 업무와 병행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민관협의체도 운영, 지역케어회의, 동단위 통합돌봄창구 등 전반적으로 사업수행 기반이 미비함으로 자치구 및 광역시 단위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내용

- 단순 사업 수준으로 본래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여러 사업의 연계구조가 미확보된 상황으로 판단됨.
- 그 외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판단되며, 공공 내(구 본청-동주민센터-보건소)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 간 사업의 공통인식 등 사전적 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향후과제

- 단기과제로 2022년 사업계획서의 재검토 및 보완 필요, 통합돌봄서비스의 형태 정비, 협의체의 역할 수행 고려, 솔루션위원회에 지역케어회의 연결 가능성의 고려가 필요함.
- 장기과제로 구청 내 통합돌봄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인력 확충 및 팀 구성, 사서원과 협의하여 동 보람이 인력 활용방안 마련이 요청됨.

2. 2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8. 26. (금) 10:00~12:00	장소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회의실
내용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지역케어회의 실제화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7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3명)	
	참여기관	6명(자치구 1명, 협력기관 5명)	

2) 상세 내용

○ 추진 현황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실적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대상)65세이상 퇴원환자(긴급의료비 지원대상 포함) (내용)의료기관 협약 서비스 연계 및 지원	11개 의료기관 협약 계속 협력 추진중
어르신 안심주거지원	(대상)주거환경 취약 어르신 (내용)어르신 맞춤형 주택 개보수	○○○건축(자활기업)협약 100가구 계획 /30가구 실시
식사 (영양밀반찬)지원	(대상)퇴원환자 및 복합만성질환자 (내용)결식위험 어르신 영양 밀반찬 지원	동구자활센터 ○○○○사업단 180가구 계획 /30가구 실시
동구형 안심서비스앱 지원	(대상)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내용)동구 안심서비스 앱 설치로 안부확인	동구안심서비스 100가구 계획 /25가구 실시

- 동구형 안심서비스앱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앱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으며, 12~24시간 안에 핸드폰을 활용하지 않으면 보호자, 부양의무자에게 연락되는 시스템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이 많지 않고, 올해 120가구 가입되어 있으나 활용도 저조한 편임.

컨설팅단 의견

- 동구형 안심서비스앱 지원사업에서 24시간 보호체계로 운영되는 형태는 담당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활용도가 저하되므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협력 현황 및 어려움

① ○○건축 (○○ 대표)

- 어르신 안심주거지원사업은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방충망, 도배장판, 싱크대 설치 등 1가구당 50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65가구의 지원이 완료됨.
- 예산이 부족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동과 수행기관으로 전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급자의 경우 LH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각 기관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의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질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② △△센터 (△△ 대리)

- 식사지원사업은 현재 120가구 대상, 단가 12,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비스 절차는 초기 면담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당일아침에 식사를 조리하여 아이스백 동봉(여름) 또는 보온가방(겨울)에 담아 배달하고 있음.
- 아빠손길 사업으로 가구당 문손잡이, 수전을 교체하고 있음.
- 대상자 선정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자치구로 신청하면 중위소득 75%미만 대상 기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기간 종료 2주 전부터 안내하여 종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식사지원사업은 음식이 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배달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대상자와 연락이 안 되는 장기출타, 가족원이 없는 경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주 2회 주기로 3개월 기간 동안 운영된 이후에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예산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거, 식사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통합돌봄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대상자와 연락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함.
- 식사지원 사업은 조리보다 배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서비스 욕구가 발견되면 공식화(기록 등)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실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을 확대할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 특성상 문서로 만족도 조사가 어려울 경우 구두를 통해 담당자가 문서로 관리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③ ■■■복지관 (■■■ 팀장)

- 건강돌봄, 정서돌봄사업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하여 혈당, 약복용을 지원하고 있음.
- 통합돌봄 예산 내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조모임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어르신 장수사진, 퇴원환자 영양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조모임에서 된장, 고추장 제조하여 나누고 있음.
- 이 사업들은 소외계층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연간 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안부확인 및 상담을 연간 25회 지원하고 있음.
- 민관 네트워크 사례회의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지속적 교류하고 후원물품도 연계하고 있음.
- 관할 행정구역 범위가 넓어서 예산과 인력 제공에 한계가 있음.
- 홍보 및 마을캠페인사업으로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복지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주민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복지만두레에서는 봉사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물적자원 연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지원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많이 있음.
- 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원만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편임.
- 행정구역이 넓어 기관 차량 2대로는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직원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주유비 등이 부담되는 상황임.

컨설팅단 의견

-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자치구-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민간에서 통합돌봄 운영 시 인력, 차량 마련이 핵심적인 수단인데 개별기관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시, 구 단위에서 혹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④ ▲▲복지관 (▲▲ 팀장)

- 일상생활지원사업으로 영양식, 밑반찬,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음.
- 특화사업으로 언택트 장비를 활용하여 인생컷, 가족사진 찍기 등을 수행하는 사진관 사업을 운영함.
-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식사지원이 3개월 후 종료되면 복지관으로 연결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음.
- 관할 3개동의 협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복지관과 근거리에 있는 동이 가장 협조적이고 나머지 동은 대상자 의뢰가 많지 않은 상황임.

⑤ ▽▽복지관 (▽▽ 사회복지사)

- 일상생활지원으로 15가정을 대상으로 주1회 밑반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가 조정 후 횟수를 확대하여 대기자가 있는 상황임.
-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연간 5회, 현재 4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고령장애인 정서지원으로 원예활동 마음꽃피우기 사업을 해피빈 지원을 통해 추진하였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하여 안부확인 지원하고 있음.
-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통합돌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함.
-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이 원활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소통이 부족함.

컨설팅단 의견

- 복지관 중심으로 통합돌봄사업이 추진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임.
- 밑반찬 지원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기관마다 특성화 있게 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함.
- 자치구-동-복지관-서비스기관의 정기적 의사소통 채널 마련이 필요하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개선점을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자치구 차원에서 동-복지관-수행기관의 협력을 향상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구 단위 취약한 조직체계에 비해 동 단위에서 활발하게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정리 및 과제

- 동 단위 거점복지관에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임.
- 민간에서 공공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자치구에서 구-동-복지관 간의 정기적 의사소통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 동구 관내 다양한 기관이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여부를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양밀반찬 지원사업이 3개월이라는 기한을 가지고 있어 통합돌봄의 핵심사업으로서의 중요성 인식과 민간수행기관과의 적절한 연계가 요구됨.
- 식사지원 사업은 조리과정도 중요하지만 배달과정도 중요하므로 서비스 욕구 파악과 공식화(기록) 등의 과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통합돌봄 실행시 인력과 차량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가능한 빠르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동구안심서비스업이 형식화되어 있어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자치구 담당자 1인 구조는 한계가 있어 인력, 조직의 개선이 필요함.

3. 3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10. 18. (화) 10:00~12:00	장소	대전사회서비스원 배움실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동 통합돌봄창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을 위한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5명(외부전문가 2명, 사회서비스원 3명)	
	참여기관	19명(자치구 2명, 보건소 2명, 동행정복지센터 15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실적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대상) 65세이상 퇴원환자(긴급의료비 지원대상 포함) (내용) 의료기관 협약 서비스 연계 및 지원	11개 의료기관 협약 계속 협력 추진중
어르신 안심주거지원	(대상) 주거환경 취약 어르신 (내용) 어르신 맞춤형 주택 개보수	○○○건축(자활기업)협약 100가구 계획 /30가구 실시
식사 (영양밀반찬)지원	(대상) 퇴원환자 및 복합만성질환자 (내용) 결식위험 어르신 영양 밀반찬 지원	동구지역자활센터 ○○○○사업단 180가구 계획 /30가구 실시
동구형 안심서비스앱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내용) 동구 안심서비스 앱 설치로 안부확인	동구안심서비스 100가구 계획 /25가구 실시

- 퇴원환자 연계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요양병원과 협약하여 운영하였으나 노인 환자 퇴원을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개인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대상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장에서는 대상자 중복에 대한 거름 장치가 없어 중복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대상자 발굴, 의료기관 연계에 관한 어려움이 상시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 보건소의 추진현황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인원	예산
방문건강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 사업내용 : 건강관리 스크리닝 및 서비스 • 보건소 내 · 외 자원연계 	2,522명	334,654천원

-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간의 연결 지점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 중임.

○ 통합돌봄창구의 운영현황 및 어려움

- 안내창구 표식이 없을 뿐이지 창구에서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동구는 전체동에서 진행하는 상황이여서 4개 돌봄사업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준임.

① ○○행정복지센터

-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의 실적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영양 밀반찬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명당 3개월 기간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음.
- 동에 간호직이 배치되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임.

② ●●행정복지센터

- 통합돌봄사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관할동에 열악한 주거환경 가정이 많아 방충망 교체사업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나 자치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사업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③ ☆☆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중복사업이 많은 상황에 있음.
- 통합돌봄서비스로 식사, 영양서비스가 지원되고, 바우처사업(공적급여)에서도 영양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맞게 체계적인 공적급여에 준한 통합서비스 마련이 요구됨.

④ ★★ 행정복지센터

- 통합돌봄의 문제점으로 조직과 인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퇴원환자의 지역 연계를 위한 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 퇴원환자 영양식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교부하는데, 대상자 모집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음.
- 동-복지관에서는 월1회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⑤ △△ 행정복지센터

-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대상주민이 많은 상황인데, 중복명단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올해는 대전시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대상 발굴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었음.

⑥ ▲▲ 행정복지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복지관을 통해 40가구 월 2회 반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통합돌봄사업과 중복되어 대상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활발히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밑반찬, 안심주거서비스 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동구형 안심서비스 앱의 경우 전화기와 맞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⑦ □□ 행정복지센터

- 영양밑반찬서비스는 3개월 지원이라는 서비스 제공기간의 제한이 있고 바우처사업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안심서비스 앱지원의 경우 1건도 발굴하지 못한 상황이고, 방문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주로 2G폰을 이용하고 있어 어플자체를 사용하기가 어려움.
-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계 건수가 없는 상황임.

⑧ ■■ 행정복지센터

- 안정화된 서비스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에서 탈락된 대상자들이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 제도가 아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대상자를 스크리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확인을 통해 판정한 이후 지원하는 절차가 필요함.

⑨ ▽▽ 행정복지센터

- 동에서 다가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만두레 등의 사업과 중복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대상자에 맞추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이 유연해야 하며, 인력보강도 필요함.

⑩ ▼▼ 행정복지센터

- 간호직으로 발령받았는데, 현재 간호직에 대한 업무는 특별히 없고, 복지업무를 협력하고 있는 상황임.

⑪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이해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추진이 어려웠음.
-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정해져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주거서비스의 경우 집주인의 수리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주거지원사업, 반찬서비스와 중복됨.
- 동구형 안심 앱 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 1명이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대상자와 관련하여 시스템이 없어 문서를 스캔하여 보내는 형식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있어 중복대상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대상자 선정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내 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등급대상자 등 일일이 대상 중복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장기요양대상자를 관리하듯이 통합돌봄대상을 관리해야 함.

⑫ ♡♡ 행정복지센터

- 통합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체계를 활용해서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⑬ ♡♡ 행정복지센터

-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한 대상자 기준을 세분화하고 완화하면 좋겠음.
- 안심주거지원사업은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인의 집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경우 중복서비스가 있다는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기존 받던 돌봄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은 지역에 돌아오면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임.

컨설팅단 의견

- 사업 중복,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사업에 대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적합한 대상군을 설정하고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체계가 없는 부분이 대전 전체의 고민임.
- 1차 컨설팅에서 동구는 본청의 역할이 왜소한 상황으로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동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통합돌봄팀에 인력이 구성되어 긍정적인 상황임.
- 현재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이 제한적이나 통합돌봄에 관한 이념적인 지향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실제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지역단위의 자원과 욕구를 조정하는 기능은 궁극적으로 공적 책임성이 존재하므로 자치구 단위의 팀과 돌봄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조직 구성이 요청됨.
- 통합돌봄 가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을 참고하여 민관협의체와 지역케어회의

운영이 요구됨.

- 지역케어회의, 통합사례회의의 경험을 살펴보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계층의 복합적 욕구를 다양하게 지원해야 하고 연계를 위해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므로 정밀하게 중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 활동이 필요해 보임.
- 실제적 필요대상자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해야 함.
-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데 타 자치구의 경우 정신, 심리 등 영역까지 대상자를 열어놓은 자치구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2차 컨설팅에서 민간기관이 참여하였는데, 민간은 공공보다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에 대한 합의과정이 있어야 함.
- 사업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중복성 등의 문제를 파악하여 보완해야 함. 예를 들어 영양식의 경우 3개월 동안 공공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지원하는 등 밀도 있는 협력이 필요함.
-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년차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민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점복지관-매칭동과 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동구는 경험이 있는 동, 복지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되도록 논의하고 기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동의 간호직 배치되면서 간호직의 고유업무와 협력적인 업무에 대한 설정 노력이 필요함.
- 배치 초기에 간호직 인력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보건소에서도 협력적인 관리가 요구됨.
-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소 조직이 깊이 관여하기 위해 본청과 보건소가 밀접하게 관련 사업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퇴원환자가 발생하여 대상자가 정해지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거, 의료, 보건서비스 등 총체적인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3) 정리 및 과제

- 자치구 본청 단위의 조직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 컨설팅에 전동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담조직 설치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필요함.
- 사업대상자 선정의 세분화와 필요에 따른 선정 기준 완화로 발굴의 어려움 해소 노력이 필요함.
-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서비스 중복문제를 인식하고 협력적 해결 노력이 필요함.
- 동의 통합상담창구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며, 통합돌봄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 이해, 정책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에 구애받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동 통합돌봄창구에서의 간호직 공무원의 고유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민관협력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제2절 서구

1. 1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5. 23. (월) 10:00~12:30	장소	서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토의 · 2022년 시범사업 계획서 검토 및 토의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8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서비스원 4명)	
	참여기관	2명(자치구 관계자)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올해 3개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되었고, 통합돌봄사업은 4개 분야 7개 사업이 추진됨.
-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로 자활기업과 업무 협약 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만5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함.
- 맞춤형 건강플러스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하여 13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 대상자 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담간호사 6명이 담당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 호전되어 향후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임.
- 또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사업,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고 있음.
- 서구 통합돌봄 실무추진단 구축하여 정기기적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 민관네트워크 정기적 운영하고 있음.
- 통합돌봄 사례회의 진행시 복지관과 동이 함께 대상자 발굴, 사례회의, 서비스 연계 및 제공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① 통합돌봄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 지역 통합돌봄과 관련한 문제점 진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비전 내용이 없고 서구청의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컨설팅단 의견

-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는 타 자치구에 비해 현황분석이 잘되어 있으나 목표 도출 없음.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보다 실무추진단과 함께 서구 통합돌봄을 위한 여러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 및 방향성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②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 구청 조직 내 통합돌봄전담팀 설치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복지정책팀의 총괄 1명과 담당자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각 권역별 사업추진현황 및 권역 우수사례 공유하고 있으나 그 외 실무추진단의 역할이 고민됨.
- 민관네트워크는 권역별로 구성하여 정기적(월1회)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합돌봄 초기단계이므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동 단위 통합돌봄 창구 인력은 다른 복지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일반 사례접수 후 돌봄대상사례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주민은 없고, 동에서 가정방문 후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임.
- 보건소와 연계 부분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었음.

컨설팅단 의견

- 자치구 단위의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역할 분담과 업무프로세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통합돌봄 대상자 설정

- 중점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타 기관과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돌봄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못한 상황임.
- 목표설정, 성과지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잘 구성된 계획서를 공유해주면 반영하여 계획 수립할 수 있겠음.

컨설팅단 의견

- 사업 지원대상과 중점 대상과 차이가 있고, 통합돌봄 대상자와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이 필요해 보임.
- 통합돌봄사업이 서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④ 지역케어회의 운영

- 통합돌봄 사례회의는 대상자 욕구에 맞춰 동-거점복지관-민간기관 등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음.
- 지역케어회의에 대한 동-거점복지관의 이해가 상이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로 결정함.

컨설팅단 의견

- 타 자치구와 다르게 권역별 민관네트워크 회의(동-거점복지관)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역케어회로 운영할 수 있겠음.
- 지역케어회의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등의 다직종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권역별 네트워크에 보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사업은 자활기업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음.
- 방문건강서비스는 보건소와 연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사업 시범사업과도 연계 중임.
- 맞춤형식사서비스는 자활기업과 연계하고 긴급돌봄은 사회서비스원과 연계 중임.

컨설팅단 의견

- 인력구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돌봄 가치에 부합하는 서구만의 사업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는 향후 중점 대상 발굴을 위해 동 단위, 긴급돌봄 대상 등 시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하여 대상자를 연계할 예정임.

㉔ 통합돌봄 자원 확보 및 지원(교육·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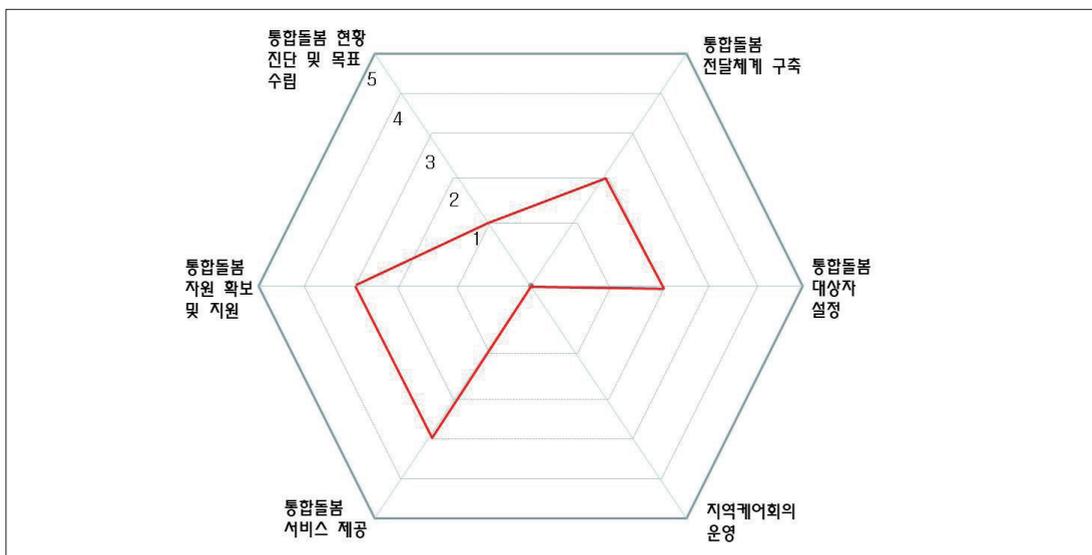
- 통합돌봄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언론홍보, 홍보물품 제작과 이를 배포하고 있음.
- 통합돌봄과 관련한 자원은 확보하고 있지 않음.

○ 핵심과제

- 단기과제로 통합돌봄 대상자 재분석 및 잠정 규모 선정 필요하고, 실무추진단과 함께 서구 통합돌봄사업의 비전 설정이 필요함.
-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준비가 필요함.
- 서비스 진행절차와 각 사업과의 연결성, 민관 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역케어회의의 운영 방안 등의 고민 필요함.

3) 컨설팅 자료

〈 그림 3-2-1 〉 서구 진단 도표



○ 추진현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통합돌봄대상자 설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관련 자원 확보 및 지원 활동 영역에서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지역케어회의 운영 영역은 활발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전달체계

- 복지정책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전담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담당자 1인 구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지는 높은 수준이나 한계가 있음.
- 민관협의체 운영, 권역별 지역케어회의, 통합돌봄창구 등이 외형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이나 실질적인 운영은 부족한 상황임.

○ 사업내용

- 진단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조직 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과제

- 단기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재분석하여 문제점 구체화, 서구통합돌봄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비전 설정 논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통합돌봄 진행 과정 만들기, 지역케어회의 본격화가 필요함.
- 장기과제로 구청 내 통합돌봄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통합돌봄 매뉴얼 마련, 퇴원환자 관련 사업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함.

2. 2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8. 26. (금) 14:00~16:30	장소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회의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지역케어회의 실제화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8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4명)	
	참여기관	10명(자치구 2명, 협력기관 8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통합돌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실무추진단은 3회 운영하였고 현황공유 및 애로사항 논의, 하반기사업 및 향후방향 논의 등이 있었음.
- 권역별 민관네트워크는 거점복지관 중심으로 매칭동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동에서 대상자 발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노인, 장애인 대상이나 건강플러스, 재활보조기 사업은 중장년층 욕구가 높아 계획 변경하여 확대 운영함.
- 자치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도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인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가지고 풀어 갈 것인지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협력기관 현황 및 어려움

① OO지역자활센터 (OOO 대리)

- 맞춤형 건강플러스 사업은 초기 50가구에서 103가구로 변경되어, 1식 9,000원, 배송비 3,000원, 1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음.

- 9,000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가능한 부분이 있음.
- 매달 건강플러스 대상명단이 변동되면 배달 이동 경로가 달라져서 담당자 소진이 빠르게 오는 경향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 인원이 많을수록 반찬을 늘릴 수 있으나 배송에 대한 차량, 운전자가 수요에 따라 바로 투입이 어려워 담당 실무자도 같이 배송하고 있는 상황임.
- 대상자 명단이 자주 변경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컨설팅단 의견

-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범위와 서비스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초기상담에서 욕구파악→조리→배달(배달과정에서 추가되는 욕구발견)→서비스 연계가 표준화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 3개월 종료 이후 복지관의 밑반찬 서비스와 연계하는 자치구도 있어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단순 배달이 아니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부 확인, 욕구 파악과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질적인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②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개동과 함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자와 격월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웃과 참여주민을 1:1매칭하여 정서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건강리더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초기 사업계획 시 동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임.
-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협력이 잘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통합돌봄 사업이 거점복지관까지 요청되고 있어 업무 중복, 과중되는 상황임.
- 대상자 발굴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반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컨설팅단 의견

- 대상자의 범위, 사업예산의 적정선, 예산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포괄 예산제 등 예산 활용의 융통성이 필요해 보임.
- 자치구와 협의하여 동과 협력하는 사업이므로 자치구에서 실적이 정리되고 부족한 부분 보완점을 찾아야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각자의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통합돌봄사업인데, 자원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지역케어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나 진행되지 못하므로 동 차원의 지역케어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③ □□종합사회복지관 (□□□ 팀장)

- 교육, 워크숍 등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지역케어회의의 경우 사례회의와 다르지 않지만 한계가 있었고, 다직종 회의가 동단위에서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상반기에 추진된 통합돌봄 욕구조사 결과 공유회를 통하여 동-복지관-자활센터와 함께 결과에 기반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함.
-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최소한의 규모로 책정하였고,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거점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선정기준은 내부적 합의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어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실적은 부족한 상황이나 건강모임,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컨설팅단 의견

-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데이터 기반에 입각한 계획 수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형태의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추진되고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④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사)

- 대전광역시, 자치구 통합돌봄 유사사업이 많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이 부족하여 통합돌봄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케어회의를 동 케어회의로 명칭 변경하여 작년부터 준비하여 추진 예정임.
- 담당공무원 인사이동이 잦아 통합돌봄사업을 복지관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 동에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적 홍보는 통장회의, 자생단체 회의에 안내하고, 동으로 오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수준이므로 대상자 발굴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 통합돌봄사업의 신속하게 개입해야 하는데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컨설팅단 의견

-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로 인해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공무원 인사이동은 고질적 어려움이므로 자치구 차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이 있어야 함.

⑤ △△복지관 (△△△ 팀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과 협업하여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서구의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장애인이나 특정 대상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서 해당 당사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복지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복지관은 서구 전체를 서비스 범위로 포괄해야 하는데 통합돌봄을 위해 매칭동에 한정하여 서비스가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반찬지원사업의 경우 주1회, 10명 대상 중 장애인 3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역의 주민에게 역할 부여하여 1:1 매칭 방문하여 안전 확인 등 관리하고 있음.
- 통합돌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역돌봄팀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어려운 계층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화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고민하고 있음.
- 동행 상담 등 복지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동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복지관의 서비스로 한계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컨설팅단 의견

- 참여 기관들이 통합돌봄에 관한 방향성 설정을 고민하고 있어 당장 성과 없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간사 역할을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음.

⑥ ▲▲종합사회복지관 (▲▲▲▲ 과장)

- 올해 처음으로 ** 1, 2, 3동 함께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였음.
- ** 1, 2동은 잘 사는 지역으로 교육 등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에 자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음.

○ 정리 및 마무리

- 자치구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 건강플러스 사업의 배달의 어려움, 지역케어회의가 추진하기 어려우면 동케어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 동과 협력 방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인사이동 시 공무원의 교육 지원방안 마련 등의 고민이 필요함.
- 복지관-동의 의사소통 채널의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하고, 전문기관에 대해 통합돌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 마련 필요함.

3) 정리 및 과제

- 거점복지관 등 협력기관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통합돌봄서비스를 진행을 위해 기관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어 긍정적임.
-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평가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상자 구분 및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구-동-복지관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및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통합돌봄 교육 강화가 요구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전체적 범위 안에서 전문영역 기관(단종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방안 마련 및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식사지원 서비스 배달을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이 취약하여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자활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요청됨.
- 건강플러스사업이 수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사업의 형태에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케어회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추진 방안 모색이 요구됨.
- 거점 복지관 의견으로 공공의 담당자가 순환보직 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크다고 평가한 만큼 인사이동 후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다양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 과도한 행정위주 사업추진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민과 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3. 3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10. 18. (화) 14:00~16:00	장소	대전사회서비스원 배움실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동 통합돌봄창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을 위한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6명(외부전문가 2명, 사회서비스원 4명)	
	참여기관	8명(자치구 2명, 보건소 1명, 동행정복지센터 5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주거환경개선, 재활보조기기, 건강플러스, 신규사업 동행매니저사업(병원동행) 추진, 만족도 결과를 확인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통합돌봄 창구를 개설하지 못해 기존의 창구를 사용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간호직 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3개동에만 간호직 배치되어 있음.
- 병원동행 매니저는 동마다 2명의 매니저를 배치하여 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 연령이나 경제력은 고려하지 않지만 중위소득 100% 이상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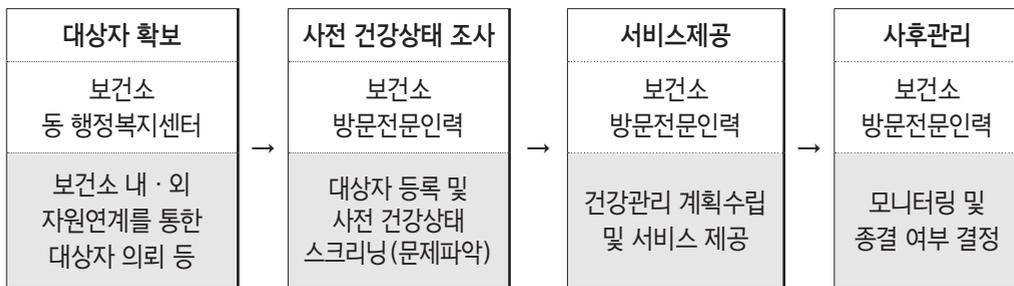
- 동 담당자와 실무추진단 의견을 통해 병원동행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치구 자체 사업예산으로 동행매니저 사업 시작하게 되었고, 우수프로그램 상을 수상함.
- 간호직은 모든 동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개동씩 추가하여 투입할 예정에 있음.

○ 보건소의 추진현황

-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구와 보건소간의 연계가 어려워 방문건강사업은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통합돌봄사업과의 연계는 내년에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전담간호사 6명이 대상자에게 직접 대면서비스 진행하여 혈압, 체온 측정 등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주요내용

- 만성질환 위험군, 질환군,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등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전담간호사 6명 시행
- 운영실적 : 2,307가구 / '22. 9. 30. 기준
- 추진절차



- 3개동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직은 의료행위를 할수 없어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배치된 전담 간호사와는 다른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찾동에서는 간호직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지방에서는 간호직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차이가 있음.

○ 통합돌봄창구의 운영현황 및 어려움

- 서구는 동 통합돌봄창구 설치에 따른 주요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 두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동 통합돌봄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대상자 초기 상담 - 돌봄대상자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현황 파악 및 사후 관리 - 거점복지관 민관협력 및 통합돌봄 연계사업 대상자 발굴 및 케어회의 추진 - 민-관 네트워크 회의 추진 및 참여 (둔산권역) 동-거점 오작교 회의 (월평권역) 민관 네트워크 회의 (관저권역) 마을이음(마을돌봄단) 구성, 우리동네 토크 정기모임 등 -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교육 실시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①○○동행정복지센터

- 간호직의 경우 의료행위를 전혀 할 수 없어 대상자에게 직접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 할 수 없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만 전달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상황으로 간호직들이 직무상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음.
- **동은 2개의 복지관과 매칭되어 사업(주거개선, 밑반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개 복지관이 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나름대로 통합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올해 1월에 동행정복지센터에 보건복지팀이 신설되고, 2개 복지관의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하여 올해 사업추진을 위한 소통을 하고 있음.
- 통합돌봄사업은 업무의 약 40~50%정도의 비중으로 통합사례관리와 함께 진행되고 있고, **동 주거 인원이 많아서 보건복지팀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현재까지 사례관리와 통합돌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어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 특성상 사업에 대한 대상이 노인이 많은 상황으로 관련 대상자가 발굴되었을 때, 실버카, 반찬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회의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자체적으로 민간협의기구 등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② ●●동 행정복지센터

- 간호직의 경우 보건소 소속일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동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전문적 특성을 따라 일을 할 수 없음.
- 간호직을 통해 정신건강 영역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음.
- **복지관과 네트워크 형성하여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하고 치매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와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지역 특성상 노인 대상자가 많아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사례관리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노인, 장애인 등 시설에 계셨던 대상자들이 지역에서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③ □□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로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 다른 동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례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전달체계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각 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임.
- 사례관리와 통합돌봄의 영역을 구분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통합사례관리/케이스 매니지먼트, 통합돌봄/케어 매니지먼트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초점화가 필요함.
- 노인, 보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간호직이 마을의 의료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의 다양한 건강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대상자에 대해 사정과 스크리닝을 통해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간호직 투입이 필요함.

- 간호직렬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시와 중앙정부에 지침개정을 요청해야 함.
-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간호직렬을 보건소 소속으로 하고 관리만 동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이드북을 통해 간호직의 통합돌봄사업에서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 보건소와 자치구의 소통을 위한 정례회의, 연계지원사업이 필요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업 진행은 자치구가 계획하여 주도하는 것이 중앙정부 방향이므로 자치구의 기획력이 요구됨.
-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많은 부분을 정리 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청 단위의 공공행정에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2023년도에는 기존과는 다른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을 만들어야 나갈 필요가 있음.

3) 정리 및 과제

- 동의 경우 지역복지관과의 연계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통합돌봄 사업비중을 높게 평가하는 등 관심도가 높아 긍정적임.
- 사례관리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차이점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직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필요함.
- 보건소와 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팀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 및 충분한 소통이 요청됨.
- 동에 배치된 간호직의 의료행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설치 및 운영 필요하고, 구-동-보건소-복지관이 함께 하는 활동(교육, 회의 등)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2023년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활동이 필요함.

제3절 유성구

1. 1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5. 18. (수) 14:00~16:30	장소	유성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구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토의 · 2022년 시범사업 계획서 검토 및 토의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8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4명)	
	참여기관	2명(자치구 관계자)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주거환경개선은 30가구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보충식사업은 노인/장애인 60가구 대상으로 주1회 밀키트를 지원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개 거점복지관과 13개동이 서비스 연계하고 있음.
- 주민참여사업으로 우리동네 돌봄사업이 동별로 운영되고 있음.
- 스마트케어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41가구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AI스피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임.
- 기타 사항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서 일반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관련 앱을 개발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실제 가동할 예정임.

○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① 통합돌봄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 우리동네 돌봄추진단을 구성하여 동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 유성구 통합돌봄 진단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지 못함.
- 욕구조사를 위해 예산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어려워 하반기에 추진하여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성구 슬로건(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활용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유성구 지역의 돌봄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돌봄대상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하며, 이 서비스들이 비전과 연계성을 가져야 유성구형 통합돌봄이 될 수 있음.
- 통합돌봄 사업을 하기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그에 따른 주요목표는 있으나 성과지표는 없어 검토가 필요함.

②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 현재 자치구 통합돌봄 담당자 1명(통합돌봄, 찾아가는 읍면동 업무 일부 담당)이 담당하고 있음.
- 자치구에는 간호직 인력은 없고, 11개동에 간호직 배치되어 있음.
- 통합돌봄 창구는 3개동에 설치되어 있고, 복지팀장, 간호직,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민원상담 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통합돌봄 창구로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됨.
- 통합돌봄 창구는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례관리 업무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통합돌봄 대상은 복지행정팀에서 서비스 상담 후 고난도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연계하여 사례관리체계에서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동에서 통합돌봄 창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민관협의체는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형태로 추가하여 구성함.
- 보건소와 연계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극 협조는 어려운 상황임.
- 11개동에 간호직이 배치되어 초기에는 복지직과 함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였는데, 코로나19로 간호직들이 보건소로 파견되면서 중단되었다가 5월 말에 복귀하여 재추진할 계획임.

컨설팅단 의견

- 통합돌봄 전담조직으로 복지직, 간호직 포함 최소 3명 정도의 인력 구성이 요구됨.
- 통합돌봄의 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기능이므로 구체화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보건소와 협력을 위해 초기에는 필수적인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구조가 필요해 보임.

③ 통합돌봄 대상자 설정

- 유성구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따른 대상군을 노인, 장애인으로 설정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유성구의 돌봄 핵심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노인, 장애인 대상을 정하는 형식임.
- 유성구의 문제 제기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계획이 요구됨.

④ 지역케어회의 운영

- 지역케어회의는 추진한 적이 없고, 솔루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전담조직, 민관협의체, 동 단위 돌봄창구 인력배치, 지역케어회의는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지역케어회의에 대해 학자마다, 현장마다 인식이 다르고, 지역케어회의와 통합사례회의의 대상을 지원하는 절차는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통합사례회의의 경험을 살려 지역케어회의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케어회의와 솔루션위원회를 혼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월에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운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36개 거점복지관과 연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다양한 자생단체를 총괄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의 고민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이 컨트롤타워 역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례특성에 따라 담당부서 혹은 기관을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정신보건 영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도하면 효율적일 것임.
- 초기에는 자치구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되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동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성구는 조직과 인력이 없으므로 지역케어회의와 솔루션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 있음.
- 대전광역시에서는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케어회의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하도록 할 것임(선도지역 중 부천, 전주에서 지역케어회의를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하반기에 ***의료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방문의료 사업 추진 구상 중에 있음.
- 우리동네 돌봄사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사업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음.
- 돌봄발굴단 계획은 동 담당자가 추진하고 동 협의체와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함.
- 인공지능 스마트케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오지 않는 편임.
- 노인 대상 스마트케어 사업은 기기 사용 교육을 KT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보건소 추진사업의 경우 추진현황 공유 및 서비스 대상 명단 조회도 가능하나 보건소 자체 운영사업이라 협조에는 한계가 있음.
- 주거복지의 안심케어 주택은 예산의 한계로 집수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영역은 다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컨설팅단 의견

- 주거와 관련하여 공식화 과정을 통해 LH, 주거 담당자와 함께 협의하여 개보수 수준을 벗어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 유성구 내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이 있어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 효율적일 수 있겠음.
- 대전광역시에서 거주가 불안정한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내년부터 스마트주택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으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⑥ 통합돌봄 자원 확보 및 지원(교육·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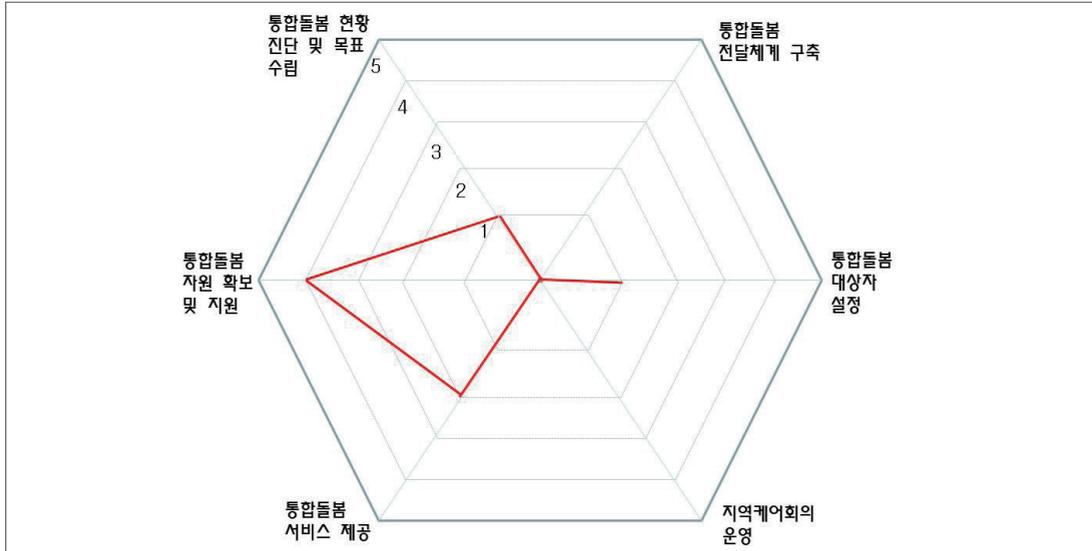
- 자원현황 공유, 사례관리와 연결하여 행복e음 자원활용하고 있음.
- 통합돌봄 주민대상 홍보,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지역신문)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유성구 구민과 관계자들이 통합돌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는 수준은 아님.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유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시민들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핵심과제

- 단기과제로 돌봄관련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유성구의 통합돌봄 문제, 해결과제 살펴볼 필요 있음.
- 유성구 핵심 대상자에 대한 고민과 정리가 필요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계획 마련도 요구됨.
-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 운영계획, 동으로 복귀하는 간호직에 대한 활동계획도 준비가 필요함.
- 장기과제로 유성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동의 업무조정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는 중장기 추진계획 중에 대전형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대상별(노인, 장애인, 아동)계획을 안내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3) 정리 및 과제

〈 그림 3-3-1 〉 유성구 진단 도표



○ 추진현황

- 유성구는 2020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1개 시범동에서 3개동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 중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기초적인 수준(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돌봄 관련 자원 확보 및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음.

○ 전달체계

- 희망복지지원팀 담당자 1인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전달체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제한적이며, 지역케어회의나 돌봄창구의 경우도 기존 전달체계와의 구분이 미비하여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의 수준은 초기단계로 파악되어 본래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공공내(구 본청-동주민센터-보건소)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간 사업의 공동인식 등 사전적 작업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향후과제

- 단기과제로 2022년 사업계획서의 재검토 및 보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간호직 등 복귀 이후 협력 계획 수립, 핵심(중점) 대상자 설정, 지역케어회의 운영계획 수립, 방문형 보건의료 사업과의 협력활동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장기과제로는 구청 내 통합돌봄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조정이 요구됨.

2. 2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8. 25. (목) 10:00~12:00	기관명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회의실
내용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지역케어회의 실제화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7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3명)	
	참여기관	8명(유성구 2명, 협력기관 6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주민참여 사업인 우리동네 돌봄사업을 동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0가구로 조정하여 운영함.
- 영양보충식 사업은 노인, 장애인 60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밀키트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케어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41가구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스마트케어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이 혈당 등의 관리를 하게 되면 보건소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 5개 거점복지관 13개동이 서비스 연계하여 어르신 생일잔치, 장수사진, 집수리, 반찬지원 등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협력기관 현황 및 어려움

① ○○협동조합 (○○○ 대표)

- 영양식 보충사업으로 주1회 밀키트 지원(2~3인 분량)하고 있음.
-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에는 아이스팩 등을 활용하여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메뉴 구성을 최대한 맞춤형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맞춤에 어려움이 있음.
-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조사하여 구청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초기 지원대상 선정시 질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음.
- 미리 대상자에 대한 질환, 거주형태, 독거노인, 가족동거 여부 등의 자료(엑셀파일)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실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전조사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 초기 명단 받은 후 미리 연락드리고 방문한 후 영양식 지원하고 있음.
- 11월에 예산이 종료되어 영양식 지원이 제일 필요한 겨울에 지원이 종료되는 어려움과 주1, 2회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나 사업이 종료되어 한계가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되려면 배달과정에서 어르신들의 필요사항이 파악되어 다시 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효율적임.
- 재가지원사업 대상과 통합돌봄 대상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함.
- 현재 영양식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고, 요구도가 높은 편이나 재가지원사업 도시락은 단가가 낮아 적합하지 않음. 영양식이라는 욕구에 근접한 방식이 효율적임.
- 예산 수반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자치구에서는 내년에 전 동 확대를 대비하여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

② ●●기업 (●●● 대리)

- AI케어 서비스를 3개동에 42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도가

- 낮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함. 관련 교육은 IT서포터즈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노래 듣고, 라디오를 청취하는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는 사용을 못하는 편임.
 -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노인 이용자 사용현황서를 출력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통합관제가 되는 기능이 있으나 이용현황 정도만 확인할 수 있지 위급상황 대응은 어려운 상황임.
 - 어르신이 **를 부르면 자치구 담당자, 보호자, **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응급상황의 2명의 노인을 응급실로 의뢰한 사례가 있었음.
 - AI케어 신청의 주 목적은 위급할 때 대처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큰 편이고, 담당 공무원이 24시간 연락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관제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음.
 - 응급신호→관제센터 인식→관계자(보호자, 담당 공무원) 문자발송→어르신께 연락→전화안 받을 경우 **에서 출동→119 호출하는 절차로 지원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노인들의 특성상 집단교육은 어려울 수 있어 오히려 사례팀 직원, 보조인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겠음.
- 근무시간 이외에 응급 대응과 관련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대응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③ □□장애인복지관 (□□□ 팀장)

- 통합돌봄 연계지원사업과 복지관 자체사업(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을 운영하고 있음.
- 동과 협력이 잘 되어 있어 돌봄대상이 발견되면 사례관리로 연결되기도 함.
- 민관이 협력해서 자원연계가 되어야 실제적인 통합돌봄이 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이지만 돌봄 대상을 노인까지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 처음 구성할 때 장애인의 비율을 협의하여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조율함.

컨설팅단 의견

- 자치구 통합돌봄사업과 동에서 진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연결점을 찾고,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통합돌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가 구-동-복지관의 연결지점 및 전반적 상황을 컨트롤 할 필요 있음.

④ ■■■종합사회복지관 (■■■ 과장)

- 지역의 3개동 특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참여하여 통합돌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협의체 위원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이 매우 중요하나 아직 미흡하여 통장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결국 제도와 정책을 연결하여 유성구만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 자치구에서 복지관의 사업들을 포함하여 같이 구성하고, 협력기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⑤ △△복지센터 (△△△ 부장)

- 동에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고, 동의 주무관들이 위원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거점-위원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
- **복지센터 직원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위원들의 욕구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동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발굴되고, 무료급식 등 중복대상이 발견되었으며, 동의 특화사업, 복지관의 사업 포함하여 실적이 관리 되고 있음.

○ 지역케어회의 현황

- 자치구 및 시범동에서 지역케어회의를 추진하고 있지 않음.

3) 정리 및 과제

- 스마트케어 관련 시스템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임.
-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내 민관협의체 포함하는 방안 고려가 필요함.
- 개별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 회의 설정이 요구됨.
- 자치구에서 민관협력의 합리적인 절차 마련 등 통합돌봄 컨트롤 역할이 필요함.
- 자치구에서 내년 동 확대를 대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전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질적 수준이 담보된 영양급식을 위해 유성구에서 고려해야 할 활동 고민이 필요함.
- 스마트 케어 추진시 응급상황에 따른 적절한 공공부분의 대처방안 마련이 요청됨.
- 지역케어회의의 적절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실제 필요한 사업예산과 시기에 부합하는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수요자 관점의 만족도 측정 등의 성과확인 노력이 요구됨.

3. 3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10. 19. (수) 10:00~12:00	장소	대전사회서비스원 배움실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동 통합돌봄창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을 위한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5명(외부전문가 2명, 사회서비스원 3명)	
	참여기관	4명(자치구 1명, 보건소 1명, 동행정복지센터 2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2020년 1개동, 2021년 1개동, 2022년 2개동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양보충지원사업,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운영함.

- 우리동네돌봄사업은 시범사업 3개동 특성에 맞게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은 퇴원환자 연계, 냉난방기를 지원하였으며, **동은 냉방기기를 지원하였고 ***동은 만성질환 대상 저염반찬을 지원함.
- 자치구에서 돌봄키트 지원(즉석조리 키트, 생필품키트, 영양보충 키트)하고 있음.
-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를 추진함.
- 내년부터 전체 동으로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는 보건-의료 연계하여 스마트케어 확대운영 구상 중에 있음.
- 주거환경개선은 주거편의 제공되는 일상지원서비스를 지원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제정을 통해 조직설치/조직개편 관련 조직 진단 중에 있음.
- 돌봄과 신설 계획에 있고(내부방침 완료), 다함께돌봄과 3개팀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팀은 신설될 예정이나 과신설은 미정임.
- 초기 계획시 한정된 예산안에서 전년도 계획에 기반하여 운영하다 보니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3개동 용역을 통해 욕구조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보건-의료 영역을 제외하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보건소는 기존 추진사업이지만 통합돌봄과 연계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코로나19로 보건소가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협력의 어려움이 있음.
- 현재 13개동에 11개동 간호직 공무원 배치되어 있음.
- 대상자들에게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전담부서도 부재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보건소의 추진현황

-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자치구에서 주택 관련 연계 요청이 의뢰될 경우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함.
- 실제적으로 연계한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보건소 건강관리를 주로 진행함.
- 자치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결성이 부족한 상황임.
- 방문 AI관련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노인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 사업은 건강관리 디바이스 대여, 활동량계, 혈압, 혈당, 체중계 등 활동별로 대여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하면 스마트폰에 연동되고 지역의료보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음.
- 월 2회 지지 메세지, 월 1회 컨설팅 추진, 6개월 후 사후 스크리닝을 통해 재설계되는 절차로 운영됨.

○ 통합돌봄창구의 운영현황 및 어려움

- **동은 2015년에 신설된 동으로 4개의 임대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임.
- (우리동네 돌봄)밀키트 지원사업과 10월중 전기요/이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돌봄 나눔가게 45호점, 나눔기관 14호점)지정기부와 지역내 교회와 연계하여 운영됨.
- (나눔데이) 나눔가게에서 물품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수거하여 30세대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하고 있음.
- (사랑가득 돌봄 냉장고) 로컬푸드에서 물품 판매 후 돌봄 냉장고에 진열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하여 이웃주민들에게 배부 및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음.
- (마음돌봄 꽃으로 힐링하다) 어르신과 중장년 70명 대상으로 교회지원을 받아 원예작품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딩동딩동 건강음료) 시범으로 3개월 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업과 협약하여 80세 이상 고령노인, 거동불편 노인 선정하여 건강음료 지원하고 풀무원 배달자들이 안부확인하고 있음.
- (프리마켓)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서 추진하여 신학기 아동 운동화, 산타선물 지원하고 있음.
- (**복지관, 희망복지센터) 팀장1명, 직원1명 파견되어 복지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명사랑 모니터링) 전화안부, 세대방문, 경로당에 나가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음.
- 지역내 복지관이 부족한 상황, 한정 인력으로 지역 내 욕구 충족에 어려움 있음.
- 희망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음.
-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이 어렵고, 행사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통합돌봄, 사례관리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상황임.

- 동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컨설팅단 의견

- 일반사회복지사업과 통합돌봄사업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료화 해야 서비스 목표가 명확해짐.
- 통합돌봄이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사업 기간 등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개별사업 접근보다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의 복지사업이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사업 중에 통합돌봄사업이 있는 상황이므로 내년도 사업에는 유연하게 기획 기간을 가지고 계획할 필요 있음.
- 통합돌봄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체계, 업무연계구조 마련 등이 구성되어야 함.
- 동에서도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이 같은 체계로 가야한다는 의견 많고,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사례관리와 공통된 지점과 분리되는 지점이 존재하므로 고민이 필요함.
- 통합돌봄의 사업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사업방향성 설정,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동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자치구 차원에서 기획력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리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을 위한 구상 워크숍 지원 필요함.
- 동 간호직에 대한 역할설정과 관련하여 지침에서 직접적 치료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보건소에서도 동의 간호직 담당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여 필요해 보임.

3) 정리 및 과제

-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조직설치 및 조직개편 관련 진단 시행하고 있고, 13개동 중 11개 동 간호직 공무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긍정적임.
- 조직설치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하고, 성과위주 보다 사업본질에 맞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동 간호직 배치에 따른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분장이 필요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개념 명확화와 관계자 간 인식 공유 활동이 요구됨.
- 동 단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간의 개념 정리와 융합적 활동 노력이 필요함.
- 연계협력 기관 간 상호 업무이해 증진 및 동 복지팀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복지팀의 구분이 필요함.
- 시범동과 구-복지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축 및 운영이 요청됨.
-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추진이 필요함.

제4절 대덕구

1. 1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5. 23. (월) 14:00~16:30	장소	대덕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구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토의 · 2022년 시범사업 계획서 검토 및 토의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8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4명)	
	참여기관	3명(자치구 통합돌봄 관계자)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2019년 통합돌봄팀 구성하였고, 자치구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의료영역 연계모델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전체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 시비는 1억, 나머지 2억 5천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통합상담실 사업은 12개동 3개동으로 나눠 권역별 통합상담실 운영하고 있음
- 영 케어러 사업 연계하여 긴급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간병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음.
- 틈새돌봄사업은 장기요양 및 노인맞춤돌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한 돌봄서비스(장기요양 신청후 선정기간 즉 평균 한달이상 동안의 돌봄공백 최소화)임.
- 민관 실무자 팀러닝으로 민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해와 연대 활동 추진하고 있음.
- 홍보의 경우 거버넌스 일환으로 의료체계 연계를 위해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운영 어려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① 통합돌봄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진단 및 목표와 대덕구의 통합돌봄 비전 등을 수립하였음.

컨설팅단 의견

- 통합돌봄 욕구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 욕구조사, 전문가 FGI, 서비스 진행과정 중 욕구파악 등 종합적으로 대덕구의 문제를 진단 및 정리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높아 향후에도 지속적 활동이 요구됨.
- 현황 진단, 목표 수립을 실행단과 같이 만들어보는 것도 실천적 의미가 있음.
- 성과지표는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대상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②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 구청장의 의지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어 전담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향후 '통합돌봄과'가 조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 보건영역과의 연계 및 협조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들과 신뢰 관계는 형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제한적임.
-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창구 형식은 갖추고 있고 민간복지기관에도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향후 다양한 장소에 돌봄창구를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통합돌봄 창구와 관련하여 공공에 둘 것인지, 민간에 둘 것인지 등 특수성에 맞추어 역할을 분담하지만 책임과 컨트롤타워는 공공이어야 함.
- 통합돌봄 창구를 단순창구로 할 것인지, 복수창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역할이 명료하고 적절히 기능하면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모르거나, 절차가 정리되지 못하면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자치구에는 팀이 조직되어 있지만 동에는 조직이 없어 행정의 체계성 부분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제기됨.

③ 통합돌봄 대상자 설정

- 중점 대상자 설정되어 있고, 대상자 입력 시스템이 없어 복지관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동의 협조를 받아 차상위 계층으로 분리하여 사통망에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음.
- 틈새돌봄의 경우 자치구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통합돌봄 시스템이 별도로 없어 행복e음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대상자 발굴의 경우, 권역단위 실행단 회의에 상정(동-거점복지관)하고 긴급사항은 실행단에서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통합돌봄 잠정 규모와 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통합창구는 사례관리 대상 적절성 진단, 욕구조사, 케어회의 연결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통합상담실을 통한 원스톱 상담 및 연계·의뢰하는 절차가 적절한 역할 설정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 대상자 잠정 규모가 결정되어야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사업의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동을 거치지 않고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④ 지역케어회의 운영

- 지역케어회의 운영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예산집행은 통합돌봄팀에서 추진함
- 권역별 실무단 사례선정 후 자치구 보건소의 지역케어회의에 상정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소에서 돌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케어회의는 권역단위 실행단에서 상정하고 보건소에 사후 회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상자 발굴시 권역별 복지관 담당자가 욕구조사를 추진(동 직원 협조)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보건소에서 지역케어회의를 하는 것은 종합적인 돌봄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역케어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재검토가 필요함.

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회의를 통해 서비스 대상 중복 및 누락 예방하고 있으나 전체 명단은 공유하고 있지 않음.

컨설팅단 의견

- 타시도의 경우 서류를 주기적 교환하는 방식으로 중복성을 걸러 내지만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⑥ 통합돌봄 자원 확보 및 지원(교육·홍보 등)

- 통합돌봄 자원과 관련하여 최신 현황자료의 공유가 부족함.
- 2년차까지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부터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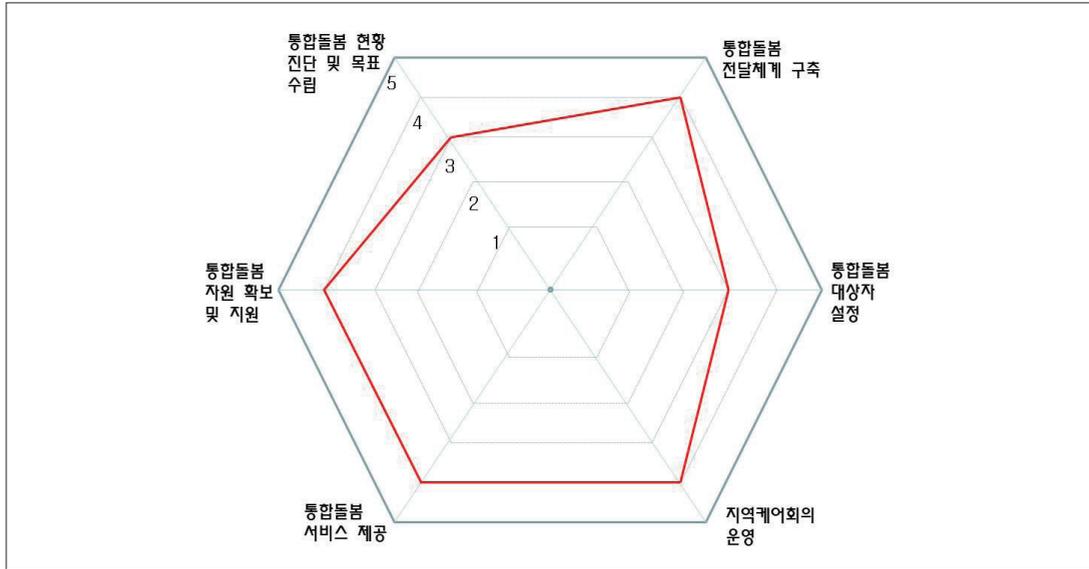
- 향후 종결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핵심과제

- 단기과제로는 대덕구 통합돌봄 문제진단, 목표와 성과지표 검토, 간호직과 협력관계 형성, 동직원과의 협력적 역할(통합돌봄 역할 강화), 협의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지역케어회의의 기능 정립, 통합돌봄 서비스 절차, 중간점검 및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방안 마련 및 검토가 필요함.
- 장기과제로는 구청 내 통합돌봄과 조직 설치, 대전광역시 통합돌봄 운영모델 구축에 있어 대덕구 모델의 제안이 필요함.

3) 컨설팅 자료

〈 그림 3-4-1 〉 대덕구 진단 도표



○ 추진현황

- 대덕구는 2020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2개 시범동에서 22개 전체동으로 사업의 확대를 고려 중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진단 전체 영역에서 활발하게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통합돌봄 대상자 설정 영역에서 개선 노력을 더해 간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역별 세밀한 계획 및 기반마련 필요

- 단체장의 의지 등으로 전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단, 민관협의체, 지역케어회의, 통합돌봄 창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행체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
- 자치구 단위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세팅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개선과제를 나타내고 있음. 이 단계는 보다 복잡하고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는 단계이므로 조직구성, 통합돌봄 운영의 방향성, 민관연계의 핵심인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등의 주요 과제를 재검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추진단과 보다 긴밀한 연계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정합성이 높은 사업연계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과제

- 단기과제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제 진단 필요, 목표 재설정 및 성과지표 제시, 간호직과의 협력관계 지속화, 동직원의 협력적 역할 강화, 협의회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 통합돌봄 서비스 과정 정리 등이 필요함.
- 장기과제로는 구청 내 현 팀조직에서 과 단위의 조직 신설성, 대덕구의 통합돌봄 운용 모형 정리, 통합돌봄 전산망 운영 방식 고려 등의 활동이 요구됨.

2. 2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8. 25. (목) 14:00~16:00	장소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회의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지역케어회의 실제화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7명(외부전문가 2명, 대전시 2명, 사회서비스원 3명)	
	참여기관	9명(자치구/ 3명, 협력기관 6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공유

- 민관 실무자 팀 러닝으로 민간기관과 동행정복지센터와 연대 활동하고, 의사결정 과정은 실행단의 협의를 통해 추진함.

- 동 팀장과 기관 중간관리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음
- 지역케어회의는 남부 4회, 중부 3회, 북부 1회 추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해 간병비 지원, 이사비 지원, 자살시도 사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음.
- 보건소에서 지역케어회의의 추진이 어려워 자치구에서 주관하여 권역별 지역케어회의로 전환하고 보건소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개선함.
- 통합상담실 사업으로 12개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
- 틈새돌봄사업으로 6월에 예산(5천만원)이 소진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통합상담실의 사례비용에서 대체하여 사용 중에 있음.
- 구청내 통합돌봄과 조직 체제로 준비 중에 있고, 예산실,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보고 완료되었음.

○ 협력기관 현황 및 어려움

① ○○종합사회복지관 (○○○ 과장)

- 틈새돌봄사업의 일부 부족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총예산이 12,000천원 수준이라 부족한 상황임.
- 어르신 수면건강 개선사업, 낙상예방 운동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편임.
- 통합상담실은 관할 동은 2개동이나 권역으로 나누어 보니 4개동이 되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임.
- 동 통합돌봄창구-권역 통합상담실(중부/남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북부/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보건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동시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② ●●●종합사회복지관 (●●● 팀장)

- 통합상담실은 사각지대 발굴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반은 건강리더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사업임.
- 영양 지원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통해서 퇴원 후 영양 희망 신청받고 있고, 주거개선 관련하여 도배, 장판, 안전바 등을 설치하고 있음.
- 대덕구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되고 있음.

③ □□종합사회복지관 (□□□ 팀장)

- 틈새돌봄사업은 대상자 발굴하여 지역케어회의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통합상담실에서 접수-회의-지원까지 바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컨설팅단 의견

- 타 자치구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치구 팀장의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는
상황이나 순환보직 후 지속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의사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편안하게 경청하는 태도가 되어 있는데, 대덕구의 경우는
가벼운 대화 등 허심탄회하게 소통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 보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자원, 예산 등이 있어야
체계화될 수 있음.
- 통합돌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④ ■■■장애인복지관 (■■■■ 국장)

-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 신속하다는 것이 장점이 있으나 여러 대상을 놓고 각 기관의
기준 모호하므로 적용 및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통합돌봄 사업 이전의 긴급사례회의 절차는 종료된 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행정,
서류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가고 있음.
- 동-복지관-주민과 함께 통합돌봄 추진하다 보니 이로 인해 협력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부분임.

⑤ △△노인복지관 (△△△ 과장)

- 공동사업으로 반려식물 정서지원, 이편한나의집-주거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퇴원환자 회복-영양죽, 밀키트 지원, 정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⑥ ▲▲노인재가센터 (▲▲▲ 센터장)

- 재가지원사업으로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틈새돌봄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높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쉬움.
- 대전광역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인 효율적임.
- 행정-복지기관 추진력은 있지만 지역주민까지 파급효과가 있으려면 주민인식 개선이 따라줘야 하므로 지역 내 리더들에게 홍보하여 지역주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⑦ ◇◇병원 (◇◇◇ 과장)

-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업 홍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상자 발굴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긴급사례회의에 보건소, 지역장애인센터, 의료협동조합 등이 참가하고 함께 사례회의를 추진함.
- 퇴원 후 거주할 곳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잠시 돌보다가 주거개선 후 지원하는 등 2개 기관 이상 협력해야 통합지원이 가능함.

○ 정리 및 마무리

- 대덕구에서 진행되고 대전광역시 시범사업, 공모사업, 거점복지관 지원사업 모두를 총괄하고 있으나 대덕구의 총괄 범위가 민간기관과 함께 공유되어함.
- 대덕구는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기초 수준을 넘어서 진보된 형태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세밀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에서 바라보는 통합돌봄, 공공에서 바라보는 통합돌봄에 대해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의과정(예산, 통합돌봄 대상 선정 등)이 필요함.
- 대덕구의 실천모형을 정리하여 통합돌봄의 초기 안착이 필요한 대전광역시의 타 자치구에 파급하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을 것임.

3) 정리 및 과제

- 통합돌봄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돋보임.
- 공공과 민간의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중복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응 노력이 필요함.
- 공공영역의 열정이 있는 팀장에 의해 작동되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지속화를 위해 시스템 중심의 운영 노력이 필요함.
-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지역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통합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예산 부족 현상이 있으므로 적절한 예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향후 발전방향

- 협의체 위원들의 인식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대덕구는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자치구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현재의 민관협력 수준을 넘어 보다 진보된 형태의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대덕구 민관협력 형태를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덕구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하려는 도전적 자세가 필요함.

3. 3차 컨설팅

1) 추진 개요

일시	2022. 10. 19. (수) 14:00~16:00	장소	대전사회서비스원 배움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협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동 통합돌봄창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활성화 장단기 과제 설정을 위한 컨설팅 		
참석자	컨설팅단 및 관계자	5명(외부전문가 2명, 사회서비스원 3명)	
	참여기관	9명(자치구 3명, 동행정복지센터 6명)	

2) 상세 내용

○ 추진현황

- 케어회의는 상황에 따라 *특에서 진행하였는데 정례화가 필요하여 오프라인 9회 추진하였고, 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에 관한 이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
- 케어회의를 통해 **동 대상자가 각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각막 구입비(3,000천원)를 통합돌봄 예산으로 지원받기도 하였음.
-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이 있어 통합상담실(4개권역)에서 케어회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 케어회의에서는 통합사례회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공공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 병원에서도 대상자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
- 초기에는 통합돌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복지관 직원 대상(60명)으로 워크숍을 추진하여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됨.
- 대전광역시 통합돌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쉽고, 중앙의 선도사업 규모도 3억 정도의 적은 수준이라 적정 예산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음.
- 통합상담실은 내년에 주력으로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제도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여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보건소의 운영현황 및 어려움

- 저소득층의 건강 취약계층 대상은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혈당, 혈압계 대여사업 추진하였음(올해 340건, 작년부터 이어진 사업이라 호응도 높음).
- 간호사가 측정(식이습관, 체성분 측정 등) 후 영양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음.
- 통합돌봄 회의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요청하여 같이 추진하고 있음.
- 동 간호직은 주민공공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동에 배치되어 복지대상자 건강상담, 안부확인, 자원 연계, 직접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보건소는 보건소 사업만 했다면 동 간호직은 동에서 활동하다 보니 통장,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대상자 발굴자원을 이해하게 되어 효율적임.
- 간호직이 반찬 전달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는데, 차츰 반찬 전달을 통해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음.
- 10월에 전체 동에 간호직이 파견되었고, 신규간호사가 파견된 동은 동의 업무 파악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방문 대상은 기준(집중관리군 등)이 정해져 있어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방문주기도 달라짐.
- 보건소에는 5~6명이 12개동을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업무부담도 있는 상황임.
- 동의 경우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상황이므로 보건소보다 기동성 등이 좋은 편이고, 사통망을 활용하고 있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음.
- 지역의료보건 시스템 등 보건소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야 효율적인데 동으로 파견될 경우 제한점이 있음.

○ 통합돌봄창구의 운영현황 및 어려움

- 복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간호영역에서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이 담당자 자신의 업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거튼튼 사업 등 자치구의 돌봄사업을 동 관할 내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케어안내 창구는 추진하고 있으나 동 자체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동의 입장에서는 사례관리 차원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고,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찾아가는 복지팀의 업무가 7~8급의 업무이기 때문에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나 의료서비스가

- 미비할 경우 대상자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날지 의문이 있음.
- 통합돌봄에 대한 비전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됨.
 - **병원은 2차 병원으로 퇴원환자가 많을 텐데, 그 대상자가 동으로 빠르게 연계된다면 통합돌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퇴원환자 의뢰를 **의료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퇴원환자 대상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의뢰시스템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컨설팅단 의견

- 대덕구의 경우, 자치구가 기획하고 복지관이 권역별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동은 통합돌봄창구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통합돌봄은 읍면동 중심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동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 관할 동 단위에서 통합돌봄의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 읍면동 단위가 개별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인력,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계획을 준비해야 시점에서 컨설팅에서 제기되었던 과제를 잘 정리하여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대덕구만의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동-거점복지관의 협력적 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활성화시키려는 고민이 필요함.
- 대덕구의 경우 동 간호직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구청 단위에서 관리하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통합돌봄에 관한 이해가 낮은 지역의 경우 대덕구의 사례는 초기단계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므로 사회서비스원의 교육 추진시 지역사례 발표자료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해외 견학 프로그램 등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해 보임.

3) 정리 및 과제

-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시도, 동의 경우 간호직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임.
-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대상자 관리 강화, 본청 단위의 간호직 관리가 필요함.
- 구-복지관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동 통합돌봄 창구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동 차원의 자체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동에 대한 적절한 방향성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동-복지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이 요구됨.
- 사업보다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사업설계 필요,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위한 포상 및 격려가 필요함.
- 대덕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계자 전체가 명확하게 인식, 공유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제 4장

컨설팅 총평 및 제언

제1절 컨설팅 총평

제2절 제언

제4장 컨설팅 총평 및 제언

제1절 컨설팅 총평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에 대한 총평을 자치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동구

- 1차에서는 자치구 담당자를 중심으로 사업 현황과 애로점을 청취하였는바 담당자 1인이 전담하는 구조가 사업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판단되었음.
- 취약한 인력구조는 지역케어회의 등 필수적인 체계를 작동시키는데 장애가 있었고, 서비스 연계 구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절차의 합리화를 제안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전담인력과 전담팀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 2차에서는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바 거점복지관 등은 본래 사업취지에 부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민간영역에서 공공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에 구-동-복지관간 정기적 소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 3차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 상황과 애로점을 토로 하였는데,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의 미합의로 인해 일정 부분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행히 3차 시기에 자치구 본청의 전담조직 설치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 시범사업에 전동이 참여하는 동구의 경우, 통합상담창구의 운영활성화가 우선적인 과제로 판단되며, 통합돌봄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바탕으로 지역케어회의 등 필수적인 체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음.

- 통합돌봄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구애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른 방향임을 제시하였음.

2. 서구

- 1차에서는 자치구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애로점을 언급하였고, 역시나 전담팀 구축이 미진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조직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하였음.
- 2차의 경우,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개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과정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였음.
- 거점복지관의 경우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동-복지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음.
- 3차에서는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사업현황 및 통합돌봄창구의 운영현황을 설명하였음.
- 동의 경우 거점복지관과 연계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배치된 간호직의 업무 한계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건소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구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기에 향후 보건소와 자치구 그리고 동 간의 소통을 위한 정례모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음.
- 서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구-동-보건소-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교육, 회의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음.

3. 유성구

- 1차에서는 자치구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애로점을 언급하였고, 담당자 1인이 전담하는 구조를 설명하였음.
- 사업추진단계는 초기단계로 파악되었기에 컨설팅단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민관협의체, 동단위 돌봄상담창구 인력배치 그리고 지역케어회의는 필수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또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유성구의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함.
- 2차에서는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점을 설명하였음. 스마트케어 관련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개별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회의 등이 추진될 필요성을 제언하였음.
- 구 단위에서 민관협력의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내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3차에서는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 추진사항, 애로점 등을 설명하였음.
- 보건소는 자치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가 안된 점이 있고, 동의 경우, 복지업무 과부하로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음.
- 그러므로 보건소와 협력체계 구축, 동 배치 간호직에 대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분장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관계자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 가까운 시일내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함.

4. 대덕구

- 1차에서는 자치구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음.
대덕구 다른 자치구와 달리, 2019년 통합돌봄팀을 구성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의료연계 모델 추진 등 통합돌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황 진단을 위한 진단도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단체장의 의지 등으로 전동이 참여하는 등 우수한 사업수준을 보여주었음.
- 컨설팅단은 개별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차에서는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고, 전반적으로 자치구 전담조직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덕구는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로 이해되어 보다 고도화된 형태의 거버넌스로의 발전을 제언하였음.
- 대덕구 모형이 대전광역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서의 선도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음.
- 3차에서는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운영현황 및 애로점을 설명하였음.
- 대덕구의 경우, 동 간호직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속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개별 추진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사업설계에 대해 제언하였음.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각각 3차에 걸쳐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지역별로 다양한 수준과 애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아쉽게도 대덕구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공공이 우선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하는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를 확인하였음.
 - 이에 반해 민간 협력기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내 주요한 파트너인 보건소의 경우, 자치구 단위와 보다 적극적인 연계 구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동의 경우, 기존 복지업무 수행으로 인해 통합돌봄 등 추가적인 업무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기에 기존 전달체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이번 컨설팅의 성과는 사업참여자들 스스로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계자들간 사업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통합돌봄 사업은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컨설팅은 사업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아닌 점검과 지원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에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안착을 위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 및 자문이 필요함.

제2절 제언

○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에 기반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제언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 정립 및 목표 설정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별도의 돌봄 ‘정책’ 또는 ‘사업’이 아닌, 한국형 돌봄 안전망을 구현하는 ‘패러다임’으로, 기존 돌봄 정책과 사업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사업추진 관계자들간 사업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인해 갈등과 혼선일 발생할 수 있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동일시되어서는 안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을 재정립한다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돌봄 패러다임”으로 정의가 가능함.
- 시설 거주보다 더 충족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돌봄은 특정 집단에 한정된 욕구가 아니라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욕구이며, 모든 인간은 돌봄을 매개로 한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적 존재로서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를 공동체로 수용하며, 상호 간에 무엇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가능함.
- 즉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인정과 배려, 포용, 편견 해소 등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 및 지지 체계 확립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
-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에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명한 목표 설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이것에 기초하여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1) 강혜규 외(2022)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지원 연구'의 핵심 내용을 참고하여 본 고에 맞게 반영함

2.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통기반 운영의 정상화

- 선도사업과 통합돌봄 가이드에 제시된 것처럼, 사업의 공통기반인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 통합돌봄창구 등 운영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도사업의 목적·목표·계획 공유,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민·관 자원의 발굴,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직종 연계 지역케어회의의 운영과 이미 설치된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통합돌봄 창구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섬세한 배치와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필수적인 기능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에서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함.

3. 통합돌봄 대상의 표적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패러다임 안에서 돌봄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행력 제고를 위해 부문별 관리 대상을 전략적으로 표적화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접근이 실용적임.
- 대상별 표적 집단의 규모를 추정한 후, 우선 개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설 및 병원 입소자의 탈시설·탈원화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인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자원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4. 통합돌봄서비스의 포괄성과 충분성 확보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포괄하는 서비스는 대상 특성에 따른 개별 욕구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
-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 영역은 ① 요양 및 돌봄 지원, ② 보건의료 지원, ③ 주거 및 안전 지원, ④ 일상생활 지원, ⑤ 사회참여 지원으로 구분 가능함.
-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부문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리 대상의 단계적 확대 내용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서비스 확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탈시설·탈원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서비스는 주거지원 서비스로, 케어안심주택, 자립지원주택과 같은 주택의 확보가 중요함.
- 또한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에 따른 재정 투입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재택)의료 서비스의 확충, 시설의료 서비스 이동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재택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경제적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공공조직내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

- 단순 서비스 연계 중심의 통합에서 개인별 사례관리가 중심이 되는 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케어매니지먼트 운영모델의 고려가 필요함.
-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조직의 설치, 조직 구성 및 형태, 기존 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 및 역할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와 돌봄의 연계 위해 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무엇보다 공공내 자치구 본청과 산하 보건소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 부서나 이른바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조직내에서 만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6.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조직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필요

- 대전광역시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광역단위에서 자치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모범적인 요소가 많음.
- 자치구의 애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제도적인 한계점이 발생하면 적극 개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사업 지원을 분담하고 있음. 향후에도 각종 매뉴얼,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과 자문 등 자치구 단위에서 해소하기 힘든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7.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필요

- 최근 중앙단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추진방식을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에서 보다 현장성이 입장한 정책추진과 지자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끈기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변화에 따라 돌봄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사회 유지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지역내 연대와 우애를 강화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2020)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pp. 53~56) 내용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질문에 적절한 우리 구 상황을 솔직하게 체크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간략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 2022년 월 일 소속(구 및 부서) _____ 성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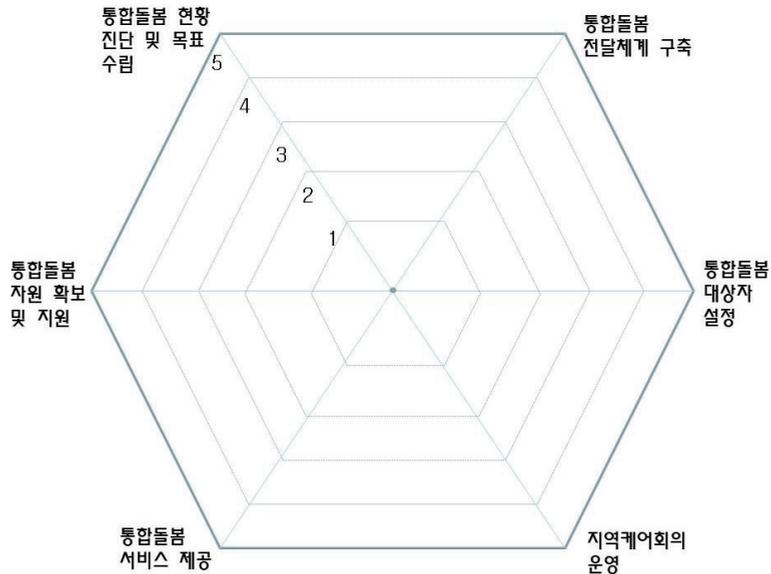
항 목	현 황	향후추진 계획 (현황이 아니인 경우 작성)
I. 통합돌봄 현황 진단 및 목표 수립		
1.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통합돌봄 욕구(필요 주민수)와 현황(자원, 서비스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통합돌봄 욕구와 현황에 기초하여 현황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졌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지역주민의 통합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통합돌봄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얻고자 하는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통합돌봄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얻고자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I.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1. 구 본청에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권한과 자원 보유, 적정수의 전문인력 등)은 설치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구 본청 전담조직은 보건-복지-행정-간호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 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동에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통합돌봄 창구'는 설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민간돌봄 방향 설정 및 추진상황 관리 등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는 구성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주관부서가 어디이든 보건과 복지부서가 충분히 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조성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항 목	현 황	향후추진 계획 (현황이 아니오인 경우 작성)
Ⅲ. 통합돌봄 대상자 설정		
1. 지역사회 진단에 기반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유형과 잠정 규모를 설정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중점 대상으로 '(요양)병원, 주거시설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 희망자'가 포함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중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대상자 발굴 과정의 합리적 구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직접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직접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Ⅳ. 지역케어회의 운영		
1. 지역케어회의 주관부서, 운영 방법은 결정하였습니까? * 운영방법 : 행정기관 직접운영, 민간 위탁, 전담 조직 신설, 기존 유사 위원회의 활동(예, 솔루션 위원회)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지역케어회의에 참여할 다직종의 인력풀은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충분히 확보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였으며, 참석자에게 보상체계는 충분히 마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다직종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대상자 욕구를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지역케어회의 운영결과가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항 목	현 황	향후추진 계획 (현황이 아니면 경우 적성)
V.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1. 중점 사업대상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주거지원, 방문건강의료, 재가돌봄,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복지관 등 민간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할 병원 및 보건의료단체와의 업무 협약은 체결하고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물리치료사회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기존의 소득보장, 방문간호, 돌봄지원 사업 등과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중복 판정하지 않고 융합하여 제공하도록 운영지침 마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각각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지역의 돌봄 욕구에 기반하여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VI. 통합돌봄 자원 확보 및 지원(교육·홍보 등)		
1.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자원 현황은 충분하게 그리고 최신 상황으로 조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확보한 자원을 행복e음에 등록 관리할 경우 '예' 에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확보한 자원은 주거-보건의료-돌봄-복지 등 욕구에 대응하여 구비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읍면동 및 보건소 전담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과정과 내용의 교육과정은 운영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실시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통합돌봄 정책 집행에 그치지 않고 효과성을 분석하고 대상자의 만족도 등을 측정할 방안은 마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리스트 진단 도표】

※본 체크리스트의 개별 항목에서 “예”로 표기한 숫자에 표기하고 표기된 6개 항목을 선으로 연결하여 진단 도표를 완성해 보세요.



【시범사업 추진시 애로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요청사항】

※이번 컨설팅에서 도움 받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2-8]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 발 행 일 : 2022년 12월
- 발 행 인 : 김 인 식
-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 (우34917)
- 전 화 : 042-331-8925
- 팩 스 : 042-331-8924
- 홈페이지 : <http://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14-2

이 책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